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79호 【루계 제23131호】 주체99(2010)년 6월 28일 (월요일)

붉은기를 높이 들고
위대한 장군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치자!

사 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를 높이 들고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세를 다그치자

오늘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은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향하여 폭풍쳐 내달리고있다. 우리 당은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로 강성대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대고조진군을 확신성있게 이끌고있으며 당과 수령의 위업에 끝없이 충직한 천만군민은 당의 부름따라 모든 전선에서 전례없는 비약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이것이 오늘의 대고조진군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높이 들고 나가는 백전백승의 기치이다.

우리는 이 구호를 높이 들고 모든 전선에서 인민생활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림으로써 뜻깊은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사에 특기할 위대한 변혁의 해로 빛내여나가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라는 혁명적구호를 높이 들고 당의 위업을 고수하고 당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야 합니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는 당과 군대와 인민이 일심단결된 선군조선에서만 나올수 있는 구호이다. 당은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고 인민은 당의 사상과 위업을 결사의 의지로 받들어나가는 혼연일체의 위대한 현실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오늘의 인민생활대고조는 우리 당이 결심하고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력사적인 투쟁이다.

우리 당은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기어이 열어제낄 웅대한 목표를 내세웠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인민생활대고조의 불길을 지펴올렸다. 당창건 65돐이 되는 올해에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고 강성대국건설의 승리의 돌파구를 열어놓으려는 우리 당의 결심은 확고부동하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이 구호는 위대한 당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의 발현이다.

우리 당이 수십성상 구상하고 실천한것은 그 어느것이나 다 우리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것이였다.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고 인민생활향상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운 당이 조선로동당이며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일이라면 천만금도 아끼지 않는 위대한 어머니품이 바로 우리 당의 품이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 전당적, 전국가적인 힘을 총집중해나가는 오늘의 대고조는 우리 인민에게 하루빨리 천만가지 행복을 안겨주려는 우리 당의 드팀없는 의지의 힘있는 과시로 된다.

오늘 위대한 당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지지와 신뢰는 더욱더 강렬해지고있다. 당의 구상과 결심은 천만번 정당하며 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때 우리의 리상도 행복도 꽃펴나고 강성대국선포의 승전고가 울려퍼질 그날도 앞당겨진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이 실천투쟁속에서 심장깊이 새긴 진리이다. 천만군민이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이 세상 끝까지 당의 령도따라 억세게 싸워나가려는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에 넘쳐있기에 조선로동당이 강하고 우리 조국이 일심단결의 강국으로 빛을 뿌리고있는것이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이 구호는 애국충정의 빛나는 실천으로 당의 위업을 받들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결사의 정신력의 분출이다.

우리 인민은 당의 부름에 심장으로 화답해나서고 당에서 벽을 울리면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강산을 울리는 혁명적이며 강의한 인민이다. 당의 위업에 대한 우리 인민의 무한한 충정과 백절불굴의 정신력이 이 땅우에 전설속의 천리마를 불러왔고 로동당시대의 일대 전성기도 펼쳐놓았다. 당의 구상과 결심을 실천으로, 자랑찬 현실로 빛내여나가는 전인민적인 대진군속에 선군조선의 국력은 비할바없이 강화되고있으며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영예는 최상의 경지에 올라서게 되였다.

오늘 당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기어이 실현하려는 우리 인민의 강의한 정신력은 최대로 폭발하고있다. 주체철과 주체섬유, 주체비료가 쏟아져나오고 현대화, CNC화의 불길속에 나라의 경제전반이 활력에 넘쳐 전진하고있다. 각지에서 상반년계획, 년간계획완수자들이 늘어나고있는 벅찬 현실은 우리 인민의 드높은 혁명적열의와 애국적헌신성의 고귀한 결실이다.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의 세련된 령도가 있고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천만군민이 있기에 오늘의 인민생활대고조의 전도는 락관적이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이 구호를 신념과 의지의 구호, 실천의 구호로 높이 들고 철저히 관철해나가는데 비약과 혁신의 길이 있고 강성대국건설의 승리가 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당의 령도를 받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 미래에 대한 신심과 락관에 넘쳐 인민생활대고조의 불길드높이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야 한다.

당의 로선과 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더욱 깊이 간직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에는 인민의 의사와 지향이 집대성되여있고 우리 혁명실천의 요구가 담겨져있다. 당의 사상과 위업이 위대하고 로선과 정책이 정당했기에 우리는 전인미답의 사회주의건설의 길도 세기적인 변혁으로 수놓아올수 있었고 반제투쟁사에 길이 빛날 백승의 영웅서사시도 창조해올수 있었다.

당의 로선과 정책에 대한 관점과 립장은 곧 당에 대한 충실성의 표현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절대적인 진리로, 삶의 요구로 받아들이는 혁명적기풍을 더욱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당만 믿고 따르면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 당의 로선과 정책이자 우리의 행복이고 찬란한 미래라는 관점, 당에서 준 과업은 죽으나 사나 무조건 해내려는 결사의 의지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꽉 차넘쳐야 한다.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기 위한 학습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언제 어디서나 우리 당의 사상과 의지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는 견결한 혁명가가 되여야 한다. 오늘의 대고조진군을 통하여 천만군민이 당과 운명을 함께 하고 숨결을 같이해나가는 우리 일심단결의 위력을 다시한번 만천하에 과시하여야 한다.

전체 인민이 자기 초소를 전선으로 여기고 당의 구상과 결심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가야 한다.

우리가 맡고있는 초소들은 그 어느 초소나 할것없이 다 당의 구상실현의 중요전선이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 모든 초소에서 혁신이 창조되고 비약이 이룩되여야 우리 당의 강성대국건설위업이 활력있게 전진할수 있다.

우리는 당이 맡겨준 혁명초소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운 긍지와 자랑을 안고 10월의 경축광장에 떳떳이 들어설수 있게 최대의 마력을 내여 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 누구나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사는 숭고한 인생관과 자기 직업에 대한 애착심, 누가 알아주건말건 순결한 량심으로 당앞에 다진 맹세를 지켜가는 무한한 헌신성을 발휘하여 오늘의 하루하루를 비약과 혁신으로 수놓아가야 한다. 경공업과 농업부문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계속 높은 생산적앙양을 일으키고 영농전투를 힘있게 벌려 인민생활대고조의 주인공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야 한다. 특히 현지지도단위들이 우리 당의 구상과 결심을 앞장에서 실현해나가야 한다.

인민군군인들의 결사관철의 투쟁기풍과 일본새는 오늘의 대고조진군의 위력한 추동력이다.

지금 인민군군인들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신념의 구호를 높이 들고 도처에서 강성대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돌파구들을 열어나가고있다. 인민군대의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을 철저히 구현해나갈 때 우리에게 점령 못할 요새가 있을수 없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이 준 과업을 아무리 어려워도 지체없이 달라붙어 한치의 드팀도 없이 완전무결하게 해제끼는 인민군군인들의 투쟁정신을 적극 따라배워야 한다. 무슨 일이나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대담하고 통이 크게 일판을 벌리며 그날계획은 그날로 무조건 수행하는 기풍을 세워야 한다. 희천의 군인건설자들처럼 우리 당의 웅대한 구상을 받들어 모든 건설물들을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할수 있게 일떠세워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군인정신, 군인기질, 군인기백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 나가며 새 기준, 새 기록창조로 선군조선의 비약의 기상을 힘있게 떨쳐야 한다.

일군들의 빈틈없는 조직사업과 능동적인 전투지휘에 당정책관철의 성과여부가 달려있다.

모든 일군들은 당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가슴깊이 새기고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힘있게 이끌어나가야 한다. 시기마다 제시되는 당정책들을 깊이 파악하고 그 집행을 위한 사업을 패기있게 전개해나가야 한다. 당정책관철에서 만족이란 있을수 없다. 일군들은 당의 의도에 맞게 언제나 목표를 높이 세우고 현실적조건을 잘 타산하여 면밀히 작전하며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이악하게 실천해나가야 한다. 사회주의경쟁과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잘 조직하여 자기 부문, 자기 단위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의 총공세에서 선구자의 영예를 빛내여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가 전인민적인 신념의 구호, 실천의 구호로 되게 하여야 한다. 강성대국건설위업을 승리에로 이끄는 우리 당의 위대성과 당정책의 진리성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선전선동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실효성있게 해나가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구상과 결심을 자랑찬 현실로 펼쳐놓기 위한 오늘의 인민생활대고조에서 영웅적위훈의 창조자로 삶을 빛내여나가도록 잘 이끌어주어야 한다.

모두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를 높이 들고 인민생활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림으로써 강성대국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해나가자.

적들의 도발책동을 짓뭉개버릴 일념이로

철천지원쑤 미제살인마들에게 철추를 내리자

《6.25미제반대투쟁의 날》 평안북도, 량강도 반미군민대회 진행

《6.25미제반대투쟁의 날》 평안북도, 량강도 반미군민대회가 27일에 진행되였다.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은 침략전쟁의 불을 지르고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였으며 오늘도 새 전쟁도발책동에 광분하고있는 미제원쑤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적개심을 안고 대회장들로 모여들었다.

대회장들에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선군의 위력으로 반미성전에서 백승을 떨치자!》,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에서 당장 물러가라!》 등의 구호판들과 천만군민의 멸적의 의지가 담긴 선전화들이 세워져있었다.

지방당, 정권기관, 근로단체책임일군들, 인민군장병들, 각계층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대회들에 참가하였다.

대회들은 《죽음을 미제침략자들에게》 노래주악으로 시작되였다.

평안북도에서

평안북도반미군민대회에서는 김평해 도당위원회 책임비서의 연설에 이어 조선인민군 장령 정도식,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락원산소분리기공장 지배인 리태왕,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신의주시 성서농장 관리위원장 김련화, 청년학생들을 대표하여 신의주제2사범대학 학생 리광철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미제가 일으킨 조선전쟁은 인류력사상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강도적인 침략전쟁이였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미제가 무차별적인 폭격과 포격으로 신의주시와 선천, 곽산군 등을 페허로 만들고 박천, 녕변, 구장군을 비롯한 곳곳에서 짐승도 낯을 붉힐 인간살륙만행을 감행한데 대하여 폭로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침략자들을 타승함으로써 민족의 자주권과 혁명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였다고 말하였다.

전쟁의 포화가 멎은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미제의 침략적본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들은 우리 조국강토를 핵전쟁의 참화속에 몰아넣으려고 발광하고있는 미제침략자들을 준렬히 단죄하였다.

그들은 인민군장병들과 도내 인민들이 백두의 천출명장을 진두에 모시여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을 가지고 당의 선군혁명령도따라 부강조국건설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킬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연설자들은 모든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은 한손에는 총을, 다른 손에는 마치와 낫, 붓을 들고 초소와 일터마다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함으로써 공화국의 위력을 비상히 높이는데 기여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량강도에서

량강도반미군민대회에서는 김철 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연설에 이어 조선인민군 장령 리인웅,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도직맹위원장 박경호,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보천군 가산협동농장 관리위원장 황영화, 청년학생들을 대표하여 량강공업대학 학생정명기가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우리 인민에게 참혹한 재난을 들씌웠으며 오늘도 나라의 통일을 가로막고 동족대결을 부추기고있는 미제침략자들과 그에 추종하는 리명박역적패당을 온 민족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하였다.

그들은 60년전 가장 야만적인 살륙전쟁을 도발하고 공화국의 도시와 마을들을 무차별적으로 초토화하다 못해 세균, 화학무기까지 사용하고 지어 원자탄을 투하할 흉계까지 꾸민 미제야말로 우리와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극악한 원쑤이라고 말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하루빨리 분렬의 비극을 끝장내고 민족의 세기적숙망인 조국통일을 기어이 이룩하고야 말 의지에 충만되여있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미제가 지난 조선전쟁에서 당한 참패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남조선을 계속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악랄하게 추구하며 우리 민족에게 참을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함선침몰사건을 우리와 억지로 결부시키면서 터무니없는 《조사결과》라는것을 발표하고 공화국에 대한 압살책동에 미쳐날뛰고있다고 그들은 격분에 넘쳐 말하였다.

그들은 원쑤들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모한 전쟁의 길을 택하는 경우 세계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인류의 더 큰 저주와 규탄을 받을것이며 자멸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연설자들은 도내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대고조의 열풍을 거세차게 일으켜 주체의 강성대국건설위업을 앞당겨 실현하는데 이바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대회들은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이어 반미시위가 진행되였다. 전체 시위참가자들은 《천출명장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를 일심단결로 받들자!》,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자!》 등의 구호들을 힘차게 부르며 선군의 위력으로 반미반괴뢰대결전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하고야말 철의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김매기전투로 들끓는 사회주의협동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알곡수확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방도의 하나는 김매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하는것입니다.》

황해남도의 협동농장들

황해남도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논두벌김매기를 끝낸데 이어 세벌김매기를 힘있게 내밀고있으며 강냉이밭김매기는 이미 여러차례 진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도안의 농촌들에서는 요즘 논밭김매기에 력량을 총집중하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농촌경리위원회일군들은 여러가지 영농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조건에서 어느 한 공정에서도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경제조직사업을 더욱 긴장하게 짜고들고있다. 특히 모든 농장들에서 로력과 기계수단을 집중적으로 동원리용하고 작업조직을 바로하여 김매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다그쳐 끝내도록 하는데 큰 힘을 넣고있다.

도안의 농촌당조직들에서는 선전선동수단들을 김매기현장에 집중시키고 화선식선동공세를 들이대여 모든 포전들에서 대고조기상이 더욱 약동하게 하고있다.

재령벌과 연백벌의 농촌들이 김매기전투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그 앞장에 안악군 오국,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과 신천군 새날, 연안군 개안농장, 배천군 조옥희협동농장과 청단군 청정협동농장을 비롯한 도안의 령도업적단위들이 섰다. 이 단위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맡겨진 김매기일정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있다.

신원, 은률, 봉천군의 농장들에서는 본격적인 논김매기에 들어가기 전에 강냉이밭김을 여러번 돌려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로력과 기계수단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성과를 거두었다. 부림소를 많이 기르고있는 봉천군에서는 일군들이 보탑을 잡고 김매기전투의 앞장에서 나가고있다.

해주시와 안악군안의 농촌들에서도 부림소관리에 힘을 넣으면서 그 리용률을 높여 김매기에서 실적을 올리고있다.

특파기자 리승철

강원도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

강원도안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낸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김매기전투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당면한 김매기전투에 떨쳐나선 도안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도농촌경리위원회일군들은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협동농장들에 나가 포전들을 일일이 밟아보고 농장들의 특성에 맞게 일정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 다음 모든 력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김매기전투를 다그치도록 적극 도와주고있다.

농업부문 령도업적단위 당조직들이 들끓는 포전마다에서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려 김매기전투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안변군 천삼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도적으로 모내기를 제일먼저 끝낸 기세드높이 김매기전투를 힘있게 벌려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농장의 일군들은 늘 작업반, 분조들의 포전들에 나가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한편 농장원들이 김매기를 기술적요구대로 질적으로 하도록 하고있다.

통천협동농장과 신성남새전문협동농장을 비롯한 원산시안의 농장들에서는 김매기계획을 모내기를 한 날자와 풀이 돋아난 상태를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현실성있게 세워나가고있다. 이와 함께 로력과 기계수단들을 집중하여 그날계획은 그날로 어김없이 수행하고있다.

문천시 관풍협동농장과 남창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농장포전은 나의 포전이다!》라는 당의 구호를 심장에 새기고 모든 포전들을 꽃밭처럼 알뜰히 가꾸어가고있다.

안변군 사평협동농장과 천내군 로운협동농장, 고성군 온정협동농장과 삼일포협동농장, 이천군 송정협동농장, 철원군 백로산협동농장을 비롯한 농장들에서도 작업반별, 분조별로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여 김매기일정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해나가고있다.

특파기자 신천일

대고조전투장의 새 소식

새로운 기와들이 쏟아져나온다

대동강타일공장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자력갱생의 기치밑에 강성대국을 건설해나가야 합니다.》

최첨단을 돌파하기 위한 비상한 공격전을 줄기차게 벌려나가고있는 대동강타일공장에서 당창건 65돐에 드리는 또 하나의 자랑찬 선물을 마련하였다.

공장에서는 최근 새로운 형의 질좋고 맵시있는 기와를 개발하여 짱짱 생산하고있다.

최금철, 길성웅, 리정길동무들을 비롯한 대동강종합건재기업소의 일군들과 김정묵, 원주섭동무들을 비롯한 대동강타일공장의 일군들은 날로 늘어나는 기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대중의 창조적지혜와 열의를 적극 발동하였다.

이전에 꾸려놓은 조선기와생산공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바닥타일생산공정에서 새로운 기와를 생산하자는 대담한 기술혁신안이 나왔다.

공장의 기술일군들과 공업시험소의 기술자들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반공화국책동을 짓부시며 우리의 원료와 자원으로 우리의 락원을 가꾸려는 견결한 민족적자존심을 안고 달라붙어 짧은 기간에 새로운 기와형타를 만들어내고 가장 합리적인 원료의 배합비률과 소성조건을 찾아내였다.

그리하여 첫 시험생산에서 단번에 성공하고 시제품생산과 함께 계렬생산으로 넘어가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파형스레트모양을 가진 새로운 기와 한장의 크기는 일반세멘트기와와 비슷하다. 이 기와는 종전의 세멘트기와나 토기와에 비하여 얇으면서도 든든하여 다루기도 편리하다. 한편 문화성이 높고 수명이 오랜것으로 하여 리용가치가 대단히 크다.

지금 공장의 기와생산능력은 비약적으로 장성하여 해마다 일떠서는 수많은 살림집건설에서 제기되는 수요를 얼마든지 보장해줄수 있게 되였다.

당의 웅대한 수도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하며 건설혁명을 일으키는데서 또 하나의 결정적인 돌파구가 열리였다.

본사기자 리동찬

강철전선을 적극 지원

평양시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펴주신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높이 추켜들고 강철증산투쟁에 떨쳐나선 강선의 로동계급을 힘있게 고무하였다.

평양시당위원회에서는 강선의 로동계급의 증산투쟁을 계속 고무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짜고들고있다.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시인민위원회의 해당 부서 일군들은 시안의 구역, 군들과 기관, 기업소들에 내려가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강철증산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해설해주면서 짧은 기간에 많은 파철을 수집하도록 이끌어주었다. 이번 파철수집사업에서는 시인민위원회와 중구역, 만경대구역, 평천구역, 순안구역안의 기관, 기업소들이 모범을 보이였다.

창광원과 중앙정보통신국, 담배련합기업소를 비롯한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실리를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생산성이 낮은 낡은 설비들을 대담하게 페기하는 방법으로 예비를 동원하여 많은 파철을 수집하였다.

얼마전 평양시에서는 수백대의 화물자동차에 많은 파철을 실어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있는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 보내주었다.

이날 평양시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펼쳐보이는 축하공연을 보면서 강선의 로동계급은 새 전쟁도발에 미쳐날뛰는 역적패당에게 쇠물폭포를 들씌우는 심정으로 더 많은 강철을 생산할 결의를 다지였다.

특파기자 최재남

원쑤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을 안고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평양일용품공장에서—　본사기자 리명일 찍음

정론

창조하라, 앞당기라

주체비료폭포가 쏟아지는 남흥의 력사적사변에 격동하여

남흥의 경사가 강한 여운으로 시대를 울리고있다.

주체비료의 고고성을 터친 환희속에 우리 장군님 모셨던 그날 남흥로동계급은 기다리고기다려온 영광의 시각을 맞이한 격정으로 눈굽적시며 위대한 그이께 자랑찬 승리의 보고를 올리였다.

자기의 피땀으로 거창한 창조물을 일떠세운 영웅적위훈의 주인공들을 대견하게 바라보시며 정말 대단하다고, 남흥로동계급이 수고가 많았다고 뜨겁게 말씀하신 경애하는 장군님,

선군령장의 축복속에 승리의 단상에 오른 남흥로동계급이 이 땅의 천만심장에 열렬히 호소하는것은 무엇인가.

창조하라, 승리와 행복은 용감한 창조자의것이다.

강성대국건설시간표를 앞당긴다는것이 어떤것이며 우리의 리상과 미래를 꽃피우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가슴벅차게 새겨주는 여기 대화학기지에서 우리는 창조와 번영의 진리에 대한 끓어오르는 흥분을 안고 열정의 붓을 달린다.

1

비료폭포가 쏟아진다.

눈꽃처럼 새하얀 비료가 콘베아를 타고 살같이 흘러가는 광경을 지켜보아도, 《뇨소비료》라고 새겨진 마대들에 자동적으로 포장된 비료가 출하직장의 제품창고에 잠간사이에 산처럼 쌓이는 장쾌한 화폭을 마주하여도 아, 우리의 비료! 라는 탄성이 저도모르게 터져나온다.

우리 장군님 얼마나 크나큰 기쁨속에 보고 또 보시였던가.

흐뭇하게 쌓인 비료더미를 바라보시며 이제는 농촌에 많은 비료를 보내줄수 있게 되였다고, 수령님의 평생소원이 풀리게 되였다고 그리도 만족해하시던 경애하는 장군님,

정녕 무심히 대할수 없다.

오곡백과 설레일 풍요한 래일을 그려주는 주체비료앞에, 온 나라의 대경사가 또 하나 늘어난 이 뜻깊은 력사적사변앞에 누구나 이름못할 격정으로 가슴들먹인다.

얼마나 소중한 우리의 재부인가.

고난의 나날 비료때문에 눈물겨운 고생도 겪었고 가슴에이는 아픔도 당해야 했던 우리 인민이다. 모진 시련의 언덕에서 허리띠를 조여매며 그려보던 비료폭포가 꿈 아닌 현실로 펼쳐지고있으니 어찌 마음설레이지 않을수 있으랴.

무연탄가스화실현이 가지는 경제적의의는 실로 크다.

쌀을 떠나 부흥과 번영을 말할수 없고 농업전선에서의 승리를 떠나 강성대국 만세의 개가를 부를수 없다.

쌀문제, 먹는 문제해결의 관건적고리는 바로 비료이다. 비료는 곧 쌀이며 비료산의 높이이자 낟가리의 높이이다.

남흥에 해마다 많은 량의 비료를 생산할수 있는 공정이 새로 꾸려짐으로써 농업생산에서 획기적전환을 가져올수 있는 든든한 담보가 마련되였다.

그려만 보아도 가슴속에 기쁨이 출렁인다.

폭포쳐쏟아지는 저 비료가 협동벌마다에 실려가 오곡백과 설레이는 풍요한 가을을 안아오고 하늘높이 치솟은 풍년낟가리아래 이 많은 분배를 어디에 다 쓸가 배나무집 령감로친 밤새껏 토론하네라는 구성진 노래소리 울려퍼질 때 이 나라 집집에는 기쁨과 랑만의 웃음꽃 더 활짝 피여나리라.

남흥의 비료폭포는 그대로 만복이 꽃펴난 래일을 그려주는 생동한 전경화이며 강성대국의 대문이 열리는 장쾌한 소리를 귀전에 실어주는 경사중의 대경사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우리 조국, 김일성조선에 강성대국의 문패를 달기 위한 총진군의 나팔소리를 힘차게 울리며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켜나가고있습니다.》

불과 몇해사이에 일어난 전변이다.

하나의 화학공장을 새롭게 일떠세우는것과 맞먹는 방대한 공사로 전일적인 생산공정을 완벽하게 갖춘 현대적인 비료생산기지가 불쑥 솟아났다.

쏟아져내리는 해별아래 눈이 시도록 은빛뿌리는 높다란 합성탑이며 크고작은 탕크들, 그물처럼 뻗어간 배관들을 바라보느라면 우리의 화학공업의 밝은 전망에 대한 확신이 절로 솟구친다.

땅우와 땅밑으로 이어져간 관의 총연장길이가 수만m나 되고 공사를 위한 설계도면만 하여도 화물차에 차곕칠 정도였다니 이런 아름찬 공사를 그처럼 짧은 기간에 완공한 남흥로동계급의 영웅성에 탄복을 금할수 없다.

복잡하고도 신비한 화학의 세계에 끌리여 우리는 가스화공정을 따라 걸음을 옮겨간다.

저탄장에 무드기 쌓였던 무연탄이 분쇄, 성형, 건조되여 딴딴한 봉탄으로 되는 과정이 바로 무연탄가스화의 첫 공정이다. 봉탄이 장입된 가스발생로에 증기와 공기를 주기적으로 불어넣으면 반수성가스가 얻어진다. 1만 5 000㎥저장탕크에 저장된 이 가스는 다시 탈류공정과 변성공정을 거쳐 청정가스로 되며 이어 가스분해탑과 정밀탈류탑을 통과하여 암모니아합성공정에 이르는데 이렇게 나온 암모니아로 생산되는것이 바로 비료인것이다.

남흥에서의 주체비료성공은 무연탄가스화에 의한 우리의 비료공업을 최첨단의 경지에 힘있게 떠올려세운 의의깊은 사변이다.

세계적인 첨단조종체계인 DCS를 우리 식으로 개발도입한 긍지와 자부에 넘친 이곳 기술자들의 이야기는 우리를 무한히 흥분케 한다.

DCS는 생산공정전반을 하나의 화면속에 감시할수 있는 관리의 집중화를 실현하는 한편 매 공정에 대한 조종을 자기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해나가는 분산형조종체계이다.

조종기술과 콤퓨터기술, 통신기술, 영상기술을 구비한 DCS의 도입으로 장치분산, 기능분산, 2중화체계가 완벽하게 갖추어짐으로써 설비의 안전성과 믿음성이 담보되게 된것은 기술적진보의 큰걸음을 힘차게 내짚고있는 우리의 화학공업의 면모를 보여주는 커다란 성과로 된다.

PLC장치에 의한 후민산생산공정의 콤퓨터조종체계도 눈길을 끌고 공정마다에 실시간분석체계를 세워 가스분석을 자동적으로 즉시에 진행함으로써 질좋은 가스를 생산하고있는 소식도 흥미있다.

화학공장이라고 선뜻 믿기 어려울 정도로 신선한 공기가 흘러넘치는 록음우거진 기업소구내길을 걸어 가스화의 마지막공정이 실현되는 3페로직장에 이르니 여기에서도 새로운 자랑거리가 우리를 기다리고있다.

생산과정에 나오는 재탄과 취풍가스, 암모니아합성페가스를 가지고 공정에 필요한 증기를 보장하며 깨끗이 탄 재까지도 씨리카트벽돌생산에 리용한다니 그야말로 버리는것이 하나도 없는 일거다득의 실리있는 공정이다.

무연탄가스화로 하여 이전시기에 비해 비료공장 하나를 더 얻는것과 맞먹는 막대한 리득을 국가에 주게 된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며 수백명이 하던 일을 수십명의 인원으로 대신하면서도 생산능력을 몇배로 확장한 마대직장의 현대화수준은 또 얼마나 훌륭한가.

허나 우리 오늘 남흥의 현실을 두고 이토록 흥분하는것은 결코 비료몇만t이라는 수자나 눈앞에 펼쳐진 구조물의 희한함때문만이 아니다.

비료공업의 주체화,

바로 여기에 있다. 《주체비료》라는 네 글자속에 남흥사변의 종자가 있고 《나프사》라는 말을 우리 나라에 무진장한 《무연탄》이라는 말로 바꾸어놓은데 남흥로동계급의 공적중의 공적이 있다.

남흥은 주체라는 고귀한 부름과 더불어 불리우는 또 하나의 위대한 창조물로써 우리의 자원,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으로 기어이 강성대국을 일떠세우려는 조선민족의 드높은 자존심과 불굴의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으며 위대한 당의 구상과 결심은 반드시 실천으로 이어지고야 만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우리는 남흥의 모습에서 주체화의 기치높이 최첨단에로 맹렬히 돌진하는 우리 경제의 용용한 기상을 보고있으며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나 자기 힘으로 해낼수 있는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주체경제에 대한 자부를 페부로 느끼고있다.

날에날마다 이 땅을 진감하는 승리의 소식들은 참으로 흐뭇하다.

주체철의 성공으로 금속공업부문이 통장훈을 부르고 주체섬유폭포와 함께 경공업이 힘껏 용솟음치는 속에 농업전선에서 승전가를 부를수 있는 또 하나의 사변이 터진 이 경사,

인민경제의 큰 고리들이 쭉쭉 풀려나가고 복에 복이 겹치는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는 만복이 꽃펴날 아름다운 래일, 바야흐로 다가오는 최후승리의 그날을 분명히 보고있다.

우리의 강성대국건설은 결코 빈말이 아니며 승산이 확고하다는 신념으로 하여 온몸에 창조의 열정과 배짱이 한껏 차넘친다.

2

미래를 개척하는 힘, 만복을 앞당겨오는 위대한 힘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장군님께서 자리가 잡힌 공장이라고 치하해주신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 대한 취재길을 이어갈수록 기적과 사변은 과연 어떻게 태여나는가에 대한 대답이 명백해진다.

그 어느 기술자를 만나보아도, 평범한 로동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아도 《우리의 힘으로 해냈습니다.》라는 긍지높은 목소리가 약속이나 한듯 울려나온다.

우리의 힘, 이것은 남흥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말이고 더없이 소중히 여기는 언어이다. 이 한마디에 남흥의 기질과 본때가 비껴있고 기상과 숨결이 고동치고있으며 력사와 전통이 응축되여있다.

자력갱생을 잘하는 공장,

일찌기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남흥에 이런 값높은 칭호를 안겨주시였다.

남흥로동계급은 가스화대상공사를 통하여 자기의 빛나는 전통우에 승리의 자욱을 또 한번 진하게 새겨놓았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웅대한 강성대국건설구상을 받드는 길에 어떤 창조물을 내놓겠는가라는 시대의 엄숙한 물음앞에 남흥로동계급의 심장은 하나로 고동쳤다.

우리의 힘으로 기어이 무연탄가스화를 실현하자.

화학공업의 첨단을 개척해야 하는 그 길에 떨쳐나설 때 남흥로동계급의 가슴을 팡팡 두드린것은 어버이수령님의 간곡한 유훈이였다.

수십년전부터 우리의 자원에 의거한 비료생산공정에 대한 구상을 무르익혀오시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나날에도 경제부문 책임일군협의회를 여시고 비료문제를 결정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절절히 당부하신 어버이수령님,

그 숭고한 뜻을 새기며 중중첩첩 막아서는 애로와 난관을 묵묵히 헤쳐나가는 남흥로동계급의 장한 투쟁모습을 지켜보시며 힘을 주고 용기를 주신분은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였다.

지난해 5월 이곳 기업소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방대한 가스화공사를 최단기간내에 끝낼수 있도록 혁명적조치를 취해주시였다.

비료생산공정을 건설하는것을 전세계가 지켜보고있소!

그이의 이 웅심깊은 말씀속에 조국과 인민의 기대가 얼마나 뜨겁게 실려있는가를 남흥로동계급은 잘 알고있었다.

이들에게는 낮과 밤이 따로 없는 《남흥시간표》가 작성되였다.

《남흥시간표》가 앞당겨질 때 강성대국건설시간표도 그만큼 당겨진다!

비상한 각오속에 한초한초가 흘렀다. 1시간을 앞당기기 위한 전투, 30분을 단축하기 위한 투쟁속에 남흥사람들은 잠을 모르는 사람들이 되였다. 겹쳐드는 피로로 하여 목이 꽉 메여버린 일군들은 손짓으로 지휘를 하지 않으면 안되였고 당결정서에 쪼아박은 전투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24시간을 꼬박 공사장에서 보내는 전투원들을 휴식시키기 위한 조치도 취해졌다.

나라의 곳곳에서 중요대상건설이 벌어지고있는 조건에서 건설자재의 부족은 가장 큰 고충이였다.

나라에 손을 내밀고 앉아있는것은 남흥의 본때가 아니다. 모든것을 우리자체의 힘으로!

로동계급의 억센 의지가 비낀 자력갱생의 후더운 숨결이 기업소의 그 어디에서나 타래쳐오르는 불길마냥 확확 열기를 내뿜었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알심있게 토대를 닦아놓은 자력갱생기지들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신 전투적과업을 관철하기 위해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공사에 필요한 철근을 보장하기 위한 전투로 소재직장은 부글부글 끓었다. 전기로에는 붉은 쇠물이 이글거리고 파철을 실은 손수레들이 구내길을 메우며 늘어섰다. 세멘트와 기와, 블로크 등을 생산하여 기업소의 현대화와 주택건설에 이바지해온 건재직장도 가스화공사에서 자기의 위력을 단단히 보여주었다.

자기 힘을 믿고 떨쳐나선 용감한 창조자, 개척자들의 앞길을 가로막을 힘은 없다.

이것은 남흥로동계급이 간석지개간을 위해 사나운 날바다와 싸우던 이야기를 들어보아도 잘 알수 있다.

고난의 그 나날 자력갱생으로 식량난을 타개할 결심을 안고 인적없는 바다가에 정복의 첫 자욱을 찍은 남흥사람들,

하루종일 감탕을 날라 쌓아놓은 뚝이 다음날 아침이면 가뭇없이 사라져버리는 안타까움에 모대기며 간석지개간의 묘리를 찾아 밤을 밝히고 어깨에 피멍이 들도록 흙마대를 나르면서도 누구도 물러서지 않았다. 수십일간의 고심어린 노력끝에 드디여 모내기를 시작하게 되였을 때 자기 힘의 위력에 대한 가슴뿌듯한 체험속에 기쁨의 눈물을 머금던 그날을 남흥사람들은 오늘도 긍지에 넘쳐 추억한다.

자력갱생!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결심하시면 무조건 현실로 꽃피워야 한다는 고결한 충정우에 고동치는 이 불굴의 투쟁정신,

그것은 절세의 위인의 크나큰 기대와 보살피심속에 나날이 더욱 억세여진 남흥의 기상, 남흥의 정신이다.

뜻깊은 5월의 그날 자체의 힘으로 수백정보의 간석지를 개간하던 이야기를 허물없이 들어주시며 아주 잘했다고, 랑만적이라고 호랑한 웃음을 터치시던 그이의 모습은 진할줄 모르는 힘이 되였고 멋들어지게 꾸려진 체육관을 돌아보시며 직장별배구경기를 조직하라고 이르시던 다정하신 그 음성 위훈의 나래가 되였다.

정이 든 남흥로동계급의 미더운 모습 눈앞에 삼삼하시여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강행군길에서도 가스화공사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대상설비운반에 직승기까지 띄워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믿음과 보답으로 이어진 잊지 못할 그 나날에 대한 소중한 추억을 축하방송모임무대에 펼치며 남흥로동계급은 사무치는 그리움속에 평양의 하늘가를 우러렀다.

허나 어이 알았으랴. 그리움과 격정의 눈물겨운 토로를 터치는 자기들의 그 모습을 우리 장군님께서 다 보고계시는줄.

어서빨리 사랑하는 자식들을 축하해주고싶으시여 남흥에로 야전차를 달리시는 우리 장군님 마음속에 남흥로동계급에 대한 사랑과 정이 얼마나 뜨겁게 고패치고있었는지 아직은 누구도 알수 없었다.

너무도 뜻밖에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신 행복감에 울렁이는 가슴을 붙안고 지배인은 절절히 말씀올렸다.

《경애하는 장군님, 우리 남흥로동계급은 장군님 모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어제 TV로 다 보았다고 하시며 로력혁신자들과 함께 기념촬영도 해주시고 남흥로동계급에게 자신의 감사를 꼭 전하라고 거듭 당부하신 그 사연 온 남흥땅을 고마움의 눈물로 적시였다.

자신께서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 안아오신 오늘이건만 그 모든 성과를 고스란히 전사들에게 돌려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한량없는 사랑의 세계에 격정을 금치 못하며 남흥로동계급은 뜨거운 마음속진정을 터친다.

남흥의 력사적사변의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경애하는 장군님이십니다!

조선민족의 정신력과 창조력을 더 높이 떨치라.

이것이 남흥사변이 시대에 울려주는 메아리이다.

조국땅곳곳에서 세기를 주름잡는 비약이 일어나고 가슴후련한 통장훈이 련이어 터져오르는 오늘의 대고조시대는 조선민족의 힘이 얼마나 강하며 세계의 상상봉에 우뚝 올라서려는 우리 인민의 기개와 본때가 얼마나 당당한가를 남김없이 과시하는 격동적인 시대이다.

자주정신이 강하고 리상이 원대하며 총명하고 용감한 우리 조선사람들이 마음먹고 달라붙으면 못해낼 일이 없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더하기 첨단과학기술, 이것이 만복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시운전공정을 뛰여넘어 단번에 시동을 걸어 성공의 만세를 부른 남흥의 승리자들,

이 성과는 결코 하늘에서 떨어진 우연이 아니라 과학기술을 창조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첨단에로의 길을 힘차게 걸어온 이들의 꾸준하고 성실한 노력이 안아온 필연의 산물이다.

생산과 기술개건, 문화사업과 후방사업의 모든 면에서 본보기공장의 수준에 올라선 남흥의 현실은 매 단위, 매 초소가 당의 구상을 실천으로 받들어나가는데서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다시금 깨우쳐준다.

미래를 내다보는 일군의 안목에 따라 그 단위의 창조의 설계도가 그려지고 일군이 내짚는 보폭에 따라 대오의 전진속도가 결정된다.

장군님 따르는 길에서 신념의 대흔들림없는 충정의 인간, 불타는 사색과 탐구로 창조의 화살표를 쉬임없이 그어가는 열정의 인간, 그 어느 분야에나 막힘이 없고 최첨단의 세계를 앞장서 개척해나가는 실력가형의 인간, 뜨거운 사랑과 정을 지닌 불같은 인간을 대중은 따르며 이런 지휘관들이 서있는 곳에서 기적과 혁신이 일어날수 있다는것을 남흥의 경험은 깊이 새겨준다.

행복은 기다려 오는것이 아니라 창조로 마중하는것이다. 자기의 두뇌, 자기의 두손, 자기의 피땀으로써만 안아올수 있는것이 바로 행복이다.

이것이 남흥로동계급이 자기의 영웅적투쟁의 총화로써 동시대인간들의 심장에 뜨겁게 울려주는 번영과 승리의 진리, 미래개척의 철학이다.

강성대국건설대전에 떨쳐나선 천만군민이여,

온 세상이 부러워 바라보게 될 **김정일**강성대국의 휘황한 래일을 위하여 창조하고 또 창조하자. 우리의 아름다운 미래를 앞당기자.

김 순 영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

혁명선렬들의 투쟁정신을 따라배워

함경남도 부동축산전문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

함경남도 부동축산전문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백두밀림에 나래치던 투사들의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으로 살며 일해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이 발휘한 혁명적인 투쟁기풍과 생활기풍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따라배워야 할 본보기입니다.》

간고한 항일의 나날 항일유격대원들은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혁명승리에 대한 필승의 신념을 지니고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갔다.

투사들이 지녔던 이런 투쟁기풍과 일본새가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가슴마다에 뜨겁게 맥박치고있다.

몇년전까지만 하여도 이 농장의 축산토대는 다른 축산전문농장들과 견주어볼 때 앞서지 못하고있었다.

농장에서는 빠른 기일안에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는 종합적인 축산기지를 자체의 힘으로 일떠세울 대담한 목표를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수십개 호동에 달하는 종합적인 축산기지를 자체로 건설한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다.

일부 농장원들속에서는 과연 우리 힘으로 방대한 건설공사를 꽤 해낼수 있겠는가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바로 이러한 때 일군들의 힘있는 정치사업이 대중을 불러일으켰다.

항일혁명투사들은 그처럼 엄혹한 환경속에서도 맨손으로 연길폭탄을 만들어 원쑤들을 족치였다, 그때에 비하면 오늘의 조건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힘으로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는 종합적인 축산기지를 보란듯이 일떠세우자!…

먼저 토끼우리를 건설하기 위한 통이 큰 작전이 전개되였다.

항일유격대의 투쟁정신과 기풍이 나래치니 긴장하던 로력문제도, 애로되던 자재들도 하나하나 풀려나갔으며 건설은 빠른 속도로 진척되였다.

그 나날 농장의 일군들은 언제나 항일유격대지휘관들처럼 대오의 앞장에서 대중을 이끌었으며 최인봉, 리종락, 김승을, 김경일, 김승일동무들을 비롯한 수많은 농장원들이 자기들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아낌없이 바치였다.

하나의 복도로 련결된 12개 호동의 토끼우리를 번듯하게 건설한 후 농장원들의 사기는 더욱 높아졌다.

농장에서는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앙양된 기세를 더욱 불러일으켜 5개의 염소호동과 젖가공실을 일떠세웠으며 이어 가금우리와 돼지호동건설에 달라붙었다.

온 농장에 백두의 혁명정신이 나래친 결과 지난해만 하여도 농장에서는 가금우리와 돼지호동, 먹이가공실을 비롯하여 농장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축산기지들을 훌륭히 일떠세웠으며 양어장도 새로 건설하였다.

불과 2~3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건설공사를 진행하여 훌륭한 축산토대를 마련한 이 고장 사람들의 심장마다에는 자기 힘을 믿고 일떠설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신념이 억척같이 자리잡고있다.

지금 이 농장의 발전전망은 아주 좋다.

종합적인 축산기지들이 일떠서는데 맞게 집짐승마리수를 늘이기 위한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있으며 산을 끼고있는 유리한 조건을 리용하여 풀판을 전망성있게 조성하기 위한 사업도 농장적인 계획에 따라 근기있게 밀고나가고있다.

앞으로 빠른 기간안에 정보산업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집짐승사양관리를 비롯하여 농장의 경영활동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보다 새롭게 해나가려는것이 이 농장에서 내세운 목표이다.

농장에서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당창건 65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축산전문농장으로서의 면모를 훌륭히 갖추기 위한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비약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전진하는 조국과 숨결을 같이하며 종합적인 축산기지를 자체의 힘으로 보란듯이 일떠세우고있는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투쟁경험은 항일혁명선렬들이 지녔던 투쟁기풍과 일본새로 살며 일해나갈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귀중한 진리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김 용 진

학습을 실천과 결부하여

순천장아찌공장에서

준엄하였던 항일혁명투쟁시기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전투마다에서 승리를 떨칠수 있은것은 학습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순간도 중단없이 진행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자신들을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로 단련하였기때문이다.

백두밀림에 나래치던 혁명적학습기풍이 순천장아찌공장에서도 힘있게 나래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하는 사람은 혁명적량식을 얻기 위한 학습을 꾸준히 하여야 혁명투쟁의 목적과 그 수행방도를 깊이 체득하고 혁명을 잘해나갈수 있습니다.》

백두산위인들의 숭고한 뜻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간직한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학습을 통하여 자신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해나가면서 기초식품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있다.

원료적재로부터 출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이 흐름식으로 되여있는 이 생산공정이 완성되면 생산능력과 제품의 질이 훨씬 높아지게 된다.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공장에서는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학습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여기에 큰 힘을 넣어 제기되는 문제들을 높은 정신력과 과학기술에 토대하여 성과적으로 풀어나가고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와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학습을 통해 종업원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위업을 높은 생산실적으로 받들어갈 드높은 맹세로 가슴 불태우면서 맡은 일에서 혁명적열정을 적극 발휘하도록 고무추동하고있다.

당정책의 운명이 자기들의 어깨에 지워져있다는 높은 자각을 안고 당, 행정일군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과 당의 의도를 깊이 연구한데 기초하여 공장안에 항일유격대원들의 혁명적학습기풍이 차넘치게 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화선식으로 참신하게 벌리고있다.

어느날 현대화공사장에 나간 공장의 한 일군은 쉴참에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를 펼쳐들고 항일유격대원들이 사령관동지의 의도를 심장에 새기고 시련과 난관이 겹쌓일수록 학습을 강화하여 혁명승리에 대한 신념을 굳게 간직하고 억세게 투쟁한 사실자료를 가지고 정치사업을 진행하여 대중의 심금을 크게 울려주었다.

과학과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기술실무수준을 높이기 위해 아글타글 노력하며 생산자대중속에 들어가 기술적지도를 짜고드는것은 이곳 일군들의 혁명적인 일본새이다.

뜻깊은 당창건 65돐을 맞으며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이 한마음한뜻이 되여 날마다 이룩해나가는 눈부신 성과는 언제나 학습을 생활화하고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사상의 힘으로 풀어나갈 때 어디서나 기적이 창조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계 성 남

일터를 번듯하게

대동강전기공장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항일유격대의 혁명적인 생활기풍을 따라배우는것은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입니다.》

대동강전기공장을 찾는 사람들은 저마다 감탄을 금치 못해한다.

록음으로 뒤덮인 공장구내, 곧게 뻗은 구내길을 따라 규모있게 들어앉은 생산건물들과 문화후생시설들, 번듯하게 꾸려진 운동장…

언제나 숙영지를 질서정연하게 꾸리고 생활한 항일유격대원들의 모범을 따라배워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는 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는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혁명적인 생활기풍을 공장의 어느곳에서나 그대로 엿볼수 있다.

종합직장을 개건하는 문제가 일정에 올랐을 때였다.

로동자들과 자리를 같이한 공장일군들의 가슴은 후더워올랐다. 생산건물을 보수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하면 품이 적게 드는것만은 사실이였다.

하지만 로동자들은 한결같이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직장을 다시 건설하고 동시에 설비들도 갱신할것을 요구하고있었다.

이것은 일군들의 한결같은 심정이기도 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그처럼 어려운 속에서도 생활을 락천적으로 진행하였다고 하면서 운동장건설을 발기하였던 미더운 로동자들의 열의를 다시한번 분발시킨다면 무엇을 못해내랴.

공장일군들은 로동자들을 불러일으켜 종합직장개건공사를 시작하였다.

자재도 로력도 긴장하였다.

그러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주저하지 않고 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하면서 건설을 일정대로 밀고나갔다. 비록 하루밤을 쉬여가도 숙영지를 알뜰하게 꾸리고 생활한 항일유격대원들처럼 일터를 새맛이 나게 변모시키려는것이 그들의 확고한 의지였다.

이런 의지로 온 공장이 부글부글 끓어번지는 속에 종합직장은 짧은 기간에 자기의 면모를 완전히 일신하였다.

공장에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문화후생시설들의 개건공사도 성과적으로 진행하고있으며 수종이 좋은 수만그루의 나무를 심어 공장구내를 수림화하였다.

본사기자 김 동 철

항일혁명투사들의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가슴깊이 새겨가고있다.

—평양창광옷공장에서— 본사기자 장청일 찍음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천속도》로 완공의 날을 앞당긴다

◎금야강발전소건설장에서◎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천속도》로 완공의 그날을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는 금야강발전소 건설자들, 10월의 대축전장에 발전소완공의 보고를 안고 떳떳이 들어설 만만한 투지에 넘쳐 공격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는 그들의 선봉에는 조선인민군 리영철소속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이 서있다.

지난해말까지 자기들앞에 맡겨진 공사과제를 기본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수수천년 동해로 흐르던 금야강의 흐름을 멈추어세우는데 큰 기여를 한 이들은 요즘 금야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의 건설자들, 함경남도돌격대원들과 힘을 합쳐 마감공사를 불이 번쩍 나게 다그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적군인정신을 가지고 달라붙으면 뚫지 못할 난관이 없고 못해낼 일이 없습니다.》

인민생활향상의 해인 올해에 금야강에서 대규모수력발전소의 동음을 높이 울리는것, 바로 이것이 발전소건설의 중요한 몫을 맡고있는 부대의 지휘관들과 군인들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이다. 리환기동무를 비롯한 부대의 지휘관들은 완공의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기는데 모를 박고 전반적공사에 대한 작전과 지휘를 잘해나가고있다.

부대에서는 해당 부문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세멘트, 철강재보장을 앞세워 언제와 발전기실건축공사를 다그치도록 하는 한편 지붕재를 비롯한 부족되는 마감자재들을 직접 맡아 풀어나가고있다.

좌안언제콩크리트치기를 지난해말까지 끝낸 부대의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은 취수탑공사를 마감단계에서 추진하면서 우안언제와 발전기실공사를 맡은 시공단위들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도 잘 해나가고있다. 특히 금야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에서 맡은 우안언제공사를 다그쳐 끝내기 위하여 군인건설자들은 타입전선을 두곳으로 넓히고 언제기중기와 대형자동차에 의한 혼합물운반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공사속도를 부쩍 높이였다.

발전소완공의 날을 앞당기기 위해 김형철소속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이 만년언제우에 자랑찬 위훈을 새겨가고있다.

우안언제의 미진된 블로크들에 대한 콩크리트치기를 다그쳐 끝낼 목표를 내건 김명철소속구분대의 군인건설자들이 밤낮이 따로 없는 공격전을 들이대였다. 이들은 기술일군들의 방조밑에 콩크리트치기속도를 높일수 있는 기술혁신안들을 대담하게 받아들이고 언제우에 전개한 굴착기로 혼합물운반과 다짐작업을 진행하여 일정계획을 매일 1.2배이상 넘쳐 수행하였다. 지난 5월에 우안언제의 여러 구간의 콩크리트치기를 끝낸 이곳 군인건설자들은 앙양된 기세를 늦추지 않고 공격속도를 높여 6월 상순에 마지막블로크의 콩크리트치기를 빛나게 결속하였다.

취수탑공사를 맡은 군인건설자들도 전구간에서 콩크리트치기를 기본적으로 결속하고 지금 물문지지틀공사를 비롯한 마감작업을 다그치고있다. 구분대의 지휘관들은 대상별작업의 특성에 맞게 군인건설자들이 공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도록 요구성을 높임으로써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고 있다. 혼합물생산을 맡은 군인들도 자력갱생의 기치밑에 선별기, 혼합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만가동, 만부하를 믿음직하게 보장함으로써 매일 수백㎥의 질좋은 콩크리트혼합물을 쾅쾅 생산하여 공사속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부강조국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하려는 애국의 마음은 하태룡소속부대의 수송전사들속에서도 높이 발휘되고있다. 부대의 지휘관들과 군인들은 튼튼하게 꾸려진 수리기지에서 륜전기계의 부속품생산을 근기있게 진행하여 대형자동차들의 가동률을 원만히 보장하고있다. 이곳 부대의 군인들은 싸우는 고지에 포탄을 실어나르는 심정으로 매일 경사급한 운행길을 쉼없이 달려 골재와 세멘트, 혼합물수송과제를 넘쳐 수행하고있다. 부대의 군인가족들도 발전소건설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할 열의에 넘쳐 지원사업을 성의있게 잘함으로써 군인들의 열의를 북돋아주고있다.

위대한 선군령장의 품속에서 백배해진 백두산혁명강군의 본때를 남김없이 과시해나가는 이곳 부대군인건설자들의 뜨거운 열의에 떠받들려 나라의 전력생산에 크게 기여하게 될 또 하나의 대규모수력발전소가 전력증산의 동음을 울릴 그날은 바야흐로 다가오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리병춘

총돌격전의 앞장에서 계속 혁신

조선인민군 리영철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할수 있게

금야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 건설자들

나라의 만년재부인 여러 대규모수력발전소들에 위훈의 자욱을 수놓아온 금야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지금 무넘이언제공사에 총력량을 집중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대규모수력발전소건설에서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이곳 발전소건설장의 공사대상중에서 무넘이언제시공은 기술적요구가 가장 복잡한것으로 하여 많은 품이 들며 그만큼 완공기일도 오래다. 하지만 당앞에 다진 맹세를 지켜 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언제우에 자랑찬 위훈을 새겨가고있다.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자!》, 이 전투적구호가 건설자들모두의 마음속에 뜨겁게 자리잡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높이 내세워주신 희천발전소 군인건설자들의 일본새를 따라배워 이곳 사업소의 건설자들은 금야강의 만년언제에 부강조국을 받드는 자신들의 깨끗한 량심을 묻어가고있다.

시공일군들도, 기술자들과 로동자들도 무넘이언제콩크리트치기에서 높은 속도와 함께 최상의 질을 보장할수 있는 방도를 찾아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발휘해나가고있다.

사업소에서는 무넘이언제시공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그 준비사업에 특별히 힘을 넣었다.

기술 및 시공일군들이 직접 《강사》가 되여 해당 단위의 기능공들에게 무넘이언제건설에서 제기되는 기술적요구와 그 시공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문제들을 인식시키기 위한 기술학습을 계기와 정황에 맞게 목적지향성있게 진행하였다. 지난 시기의 좋은 경험들을 현장조건에 어떻게 받아들일수 있겠는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 학습은 기능공들이 공법상의 요구들을 더 잘 파악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이와 함께 사업소에서는 대중적기술혁신의 불길을 지펴올려 현장조건에 맞으면서도 공사속도를 높일수 있는 공법들을 하나하나 찾아나갔다. 시공과정에 제기될수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기술자들과 기능공들속에서 수십차례의 토론을 거듭하는 과정에 합리적인 곡면휘틀제작방법 등 혁신적인 안들이 쏟아져나왔다.

이런 만단의 준비밑에 시작된 무넘이언제공사는 지금 날이 갈수록 활기를 띠고 진척되고있다. 부기사장 김승길동무를 비롯한 사업소의 일군들은 설계의 요구대로 평면, 곡면휘틀 등 여러 규격의 휘틀생산을 선행시키고 현지에서 로동자들과 숨결을 같이하며 시공지도를 적극 따라세우고있다.

발전소완공의 날을 앞당기는 지름길을 자기들이 마련해간다는 자각밑에 건축, 타입직장의 기능공들이 공중에서의 휘틀조립작업과 부분별언제콩크리트치기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해나가고있다. 지난 5월까지 여러 구간의 무넘이언제콩크리트치기를 끝낸 이들은 요즘 군인건설자들과 힘을 합쳐 타입전선을 넓히고 공사속도를 부쩍 높여나가고있다. 특히 이곳 기능공들은 기술자들과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장마철이 다가오는 조건에 맞게 무넘이언제공사를 계속 내밀수 있는 새로운 시공방법을 대담하게 받아들여 완공기일을 앞당길수 있는 밝은 전망을 열어놓았다.

상판부재생산을 맡은 《차광수청년돌격대》원들도 철근조립에서 기술규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고 콩크리트다짐작업을 잘해나감으로써 공사에 필요한 상판부재의 질을 철저히 보장해나가고있다.

혼합물생산을 맡은 여러 직장의 로동자들은 건설물의 질을 보장하는데서 자신들이 지닌 임무의 중요성을 명심하고 타입현장들에 질좋은 콩크리트혼합물을 지장없이 생산보장하고있다.

조선인민군 리영철소속부대 지휘관들과 현지에 나온 국가건설감독성의 일군들도 무넘이언제시공을 함께 책임지는 립장에서 자기들의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침으로써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할수 있게 금야강의 대규모언제를 완공하는데 적극 기여하고있다.

본사기자

현지보도

비약의 열풍 휘몰아친다

취수탑공사장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군대는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실한 사상과 신념의 강군이며 가장 조직화된 전투대오입니다.》

여기는 금야강발전소건설장의 취수탑공사장이다.

지금 여기서는 조선인민군 김정삼소속구분대 군인건설자들이 취수탑콩크리트치기를 결속하는 마지막 공격전을 벌리고있다. 세차게 펄럭이는 붉은기들, 새로운 위훈창조에로 부르는 구호들, 예술선동대원들의 힘찬 노래소리…

공사장은 말그대로 격전장을 방불케 한다. 골재를 가득 싣고 쉬임없이 달려오는 대형자동차들, 레루우를 달리는 혼합물운반차들도 마지막돌격전으로 드바쁘다.

완공의 시각을 하루빨리 앞당겨 위대한 장군님께 승리의 보고를 드리려는 군인건설자들의 열정의 분출로 하여 시간이 갈수록 전투장의 분위기는 더욱 고조된다.

측량수들이 좌표를 확정하기 바쁘게 잠간사이에 휘틀을 조립하는 조립공들과 쉼없이 혁신의 불꽃을 날리는 용접공들의 구리빛얼굴마다에 신심이 넘쳐난다.

이윽고 용접작업이 거의 마무리되는것과 동시에 변승일동무를 비롯한 신호수들이 기발을 흔들며 대형기중기들에 연방 신호를 보낸다. 큼직한 혼합물바가지를 건듯 들어 중계장에 올려놓는 7호기중기, 기다렸다는듯 둔중한 동음으로 화답하며 혼합물바가지를 넘겨받는 6호기중기,

승리의 령마루에로 치달아오르는 내 조국의 기상인양 높이도 솟구친 언제우에서 6호기중기가 긴 팔을 타입현장쪽으로 드리우는 순간 육중한 혼합물바가지에서 혼합물폭포가 쏟아져내린다.

산같이 쌓인 혼합물무지에 진동기를 대고 혼합물을 힘껏 다져가는 군인건설자들, 쉬임없이 움직이는 기중기소리, 또다시 쏟아지는 혼합물폭포, 진동기들의 동음…

어느새 마지막구간에서 콩크리트치기를 끝낸 위훈의 소식을 전하는 격동적인 전투소보가 나붙는다.

—취수탑콩크리트치기공사 성과적으로 결속!

—취수탑공사에서 위훈떨친 혁신자들을 축하한다.

《요즘 우리 동무들의 기세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승리의 시각이 눈앞에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완공의 그날이 말입니다.》

군인건설자들의 미더운 모습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 우리에게 동행한 부대일군이 하는 말이다.

그렇다. 조국에 바쳐가는 군인건설자들의 애국의 열정에 의하여 금야강발전소는 머지않아 선군시대를 빛내이는 또 하나의 위대한 창조물로 솟아올라 자기의 위용을 떨칠것이다.

김충성

발전기실공사 마감단계

함경남도돌격대가 맡은 발전기실공사가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돌격대지휘부에서는 공사가 마감단계에서 진척되고있는 요즘 전투목표를 높이 세우고 모든 전투원들이 공사속도와 질을 다같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도록 그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분출시키고있다.

발전기실건축공사를 맡은 돌격대원들이 기세좋게 내달리고있다. 이들은 작업공간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발전기실축조공사, 지붕공사를 와닥닥 해제꼈으며 그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힘차게 내달려 내외부미장도 완전히 결속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발전설비, 장치물조립을 맡은 돌격대원들은 합리적인 공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기술자, 기능공들사이의 치밀한 협동으로 매일 맡겨진 과제를 넘쳐 수행하고있다. 세차게 휘몰아치는 총공격전의 열풍속에 1호발전기타빈조립, 비상방수구 후면물문조립, 취수구살창대기를 비롯한 기본적인 공사가 짧은 기간에 결속되였으며 1호철관로 설치공사도 마감단계에서 진척되고있다.

본사기자

개천탄광에서 석탄산에 비낀 깐진 일본새

그날 저녁 총화시간이였다. 하루계획을 넘쳐 수행한 갱장들이 어깨를 들썩이며 사무실에 모여앉았다. 하지만 이들이 생각한것처럼 총화시간이 즐겁게만 흐른것은 아니였다. 그날 모임에서는 막장관리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심중하게 토론되였다.

갱장들이 사무실밖으로 나간 뒤에도 책임일군들은 한자리에 그냥 남아 생산활동의 직접적담당자들을 발동시키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갔다. 그후 탄광의 책임일군들은 황룡운동무를 비롯한 참모부서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였다. 그리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지도를 받은 단위들의 모범을 따라배워 일생산 및 재정총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일생산 및 재정총화에서 살림살이를 짜고들기 위한 사업정형을 중대, 소대단위로 정상적으로 총화하고 제기된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생산자대중의 자각성을 옳게 발동시킬수 있었다. 탄광에서는 해당 부서일군들이 현장에 내려가 탄부들과 함께 진지한 토론을 진행하여 일생산 및 재정총화를 위한 평가기준의 세부조항들을 새로 첨부하게 하였다. 이 과정이 결코 하루이틀에 이루어진것은 아니였다. 일군들은 사색을 깊이하고 생산자들과 여러차례의 협의를 하는 과정에 현실성있는 평가기준을 제정할수 있었다.

결과 생산자대중의 주인다운 자각이 비할바없이 높아졌으며 경영활동을 보다 과학화하여 생산을 더욱 늘일수 있게 되였다.

본사기자 강명천

결의목표를 완강하게 실천

철산군 명암리당위원회에서

철산군 명암리당위원회에서 올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결의목표를 세울 때였다.

리당비서 정성복동무는 리당위원회가 제3작업반의 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사업도 잘 떠밀어주면서 리소재지의 면모를 새롭게 하기 위한 사업과 제6작업반의 2중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사업도 놓치지 말고 동시에 밀고나가자고 하였다.

아름찬 결의목표앞에 망설이는 일군들도 있었지만 리당일군은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기만 하면 그 어떤 난관도 두려울것이 없다고 하면서 당원들과 농장원들속으로 들어가 리당위원회가 내세운 결의목표의 내용들을 알려주어 그들의 심장을 끓게 하였다.

이렇게 모두가 마음의 준비를 갖추게 한 다음 리당위원회에서는 리소재지를 잘 꾸리기 위한 돌격대를 조직하도록 하였으며 제6, 3작업반들에서 내세운 결의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잘 이끌었다. 리당일군은 수리분조장을 비롯한 여러명의 초급일군들과 함께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려진 도안의 여러 단위들에 찾아가 경험을 배우고 자신은 밤을 새워가며 설계초안을 작성하고 다음날에는 대중토의를 붙여 하나하나 완성하여나갔다. 관리위원장 로원남동무를 비롯한 관리위원회의 일군들은 자재보장사업을 맡아안고 뛰였다.

농사일은 농사일대로 하면서 건설을 내밀자니 힘은 곱절로 들었다. 하지만 리당위원회는 결의목표실현계획을 면밀하게 세우고 드팀없이 밀고나갔다.

그리하여 내세운 결의목표대로 리소재지의 면모를 새롭게 하고 제6작업반과 제3작업반의 공공건물들과 살림집들을 새맛이 나게 꾸려놓게 되였다.

본사기자 리종석

조국의 만년재부를 늘여가는 위훈의 창조자들

고산과수농장 현대화공사를 다그치고있는 618건설돌격대원들의 투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무슨 일이나 해내고야말겠다는 사상적각오를 가지고 달라붙어야 하며 일단 시작한 일은 끝장을 보는 혁명적기풍을 세워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을 받들고 떨쳐나선 618건설돌격대원들의 영웅적인 투쟁에 의하여 청춘과원으로 전변되는 고산과수농장의 희한한 새 모습을 본 사람들은 누구나 감탄을 금치 못해한다.

착공의 그날로부터 불과 몇개월, 길지 않은 이 나날 공사에 동원된 돌격대원들은 결사관철의 투쟁정신으로 1단계 과수원건설에서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였다. 300여만㎥의 흙을 처리하여 수백정보의 토지를 정리, 수만대의 과일나무지지대들을 세워 새 과수원을 조성, 도로와 물길건설…

지난 10년간 조국의 만년재부를 일떠세우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혁혁한 위훈을 창조해온 미더운 618건설돌격대원들!

우리는 끝간데없이 펼쳐진 새 과수원을 발목이 시도록 밟아보며 불굴의 정신력과 애국의 열정으로 또 하나의 조국의 만년재부를 마련해가고있는 이들의 투쟁이야기를 아래에 전한다.

철령에서 다진 맹세를 지켜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와 더불어 그 이름 빛나는 철령에 지난해말 많은 사람들이 올랐다. 고산과수농장 현대화공사장으로 달려온 618건설돌격대원들이였다. 공사장으로 달려온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숭엄한 빛이 어려있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을 현실로 꽃피우려는 확고한 의지, 총진군에 떨쳐나선 전국의 근로자들과 심장의 박동을 같이하며 조국의 만년재부를 늘여갈 결의로 돌격대원들의 가슴은 세차게 들먹이였다.

허나 쉽게는 갈수 없는 길이였다. 고산과수농장 현대화공사는 이미 진행한 공사들에 비해볼때 훨씬 더 어려운 조건에서 진행되는 공사였다. 1단계 토지정리공사량만 해도 방대하였고 거기에 키낮은사과나무심기와 과일나무지지대세우기, 새 도로와 물길, 각종 구조물건설 등을 동시에 따라세워야 하였다.

그중에서도 제일 어려운것은 모든것이 땅땅 얼어붙은 한겨울에 야산들을 전부 허물고 골짜기들을 메워 수백정보의 과수밭을 새로 조성하는것이였다.

—고산과수농장을 현대적인 대규모과일생산기지로 훌륭히 건설하고 위대한 장군님께 승리의 보고를 드리자!

이것이 사연깊은 철령에 올라다진 돌격대원들의 심장의 맹세였다. 하지만 그 맹세를 실천하기 위한 투쟁은 첫걸음부터 힘에 부치였다. 아직은 불도젤을 비롯한 공사설비들과 기재들이 지 않았다. 돌격대원들은 흙운반에서 능률을 높일수 있는 방도를 《손수레전》에서 찾았다. 각 려단들에서는 이렇게 하루동안에 수만㎥의 흙을 운반하였고 돌격대원들속에서는 매일 100여리를 달려 한차분의 흙을 나르는 혁신자들이 수없이 늘어났다.

지난 2월말, 매일이다싶이 쏟아지는 눈비로 설비들이 제대로 가동할수 없게 되였다. 이때에도 돌격대원들은 조건이 갖추어지기를 기다린것이 아니라 젖은 마대를 지고 달리고 또 달리였다. 점심식사시간마저 아까와 주먹밥을 씹으면서 모두가 격전을 벌리였다. 그강의한 의지와 뜨거운 열정에 떠받들려 날에날마다 공사속도는 빨라졌다. 드디여 그들은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그날에 터져오른 《만세!》의 함성, 그것은 철령을 심장에 안고 결사관철로 하루하루를 위훈으로 빛내여온 돌격대원들의 더없는 긍지의 분출이였다.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다

애국은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을 하루빨리 실천으로 빛내일 결사의 각오안고 불꽃튀는 전투의 낮과 밤을 이어가는 돌격대원들의 가슴마다에 불타오른것은 과연 무엇이였던가.

—조국의 만년재부로 영원히 빛을 뿌릴 청춘과원을 일떠세우는 우리의 보람찬 진군길에는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다.

바로 이 하나의 의지와 지향이였다.

새 과수원건설에서 과일나무지지대를 제때에 생산하는 문제가 제기되였을 때였다. 돌격대원들은 그 누가 생산조건을 보장해주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자체의 힘으로 과일나무지지대생산기지를 건설할 대담한 목표가 세워졌다. 하지만 강추위가 그들의 앞길을 막아나섰다. 이런 조건에서는 콩크리트치기를 할수 없단 말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니라고 가르쳐주시였는데 우리에게 두려울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목소리들이 량강도광업련합기업소련대에서 울려나왔다. 돌격대원들은 자신심에 넘쳐 집체적지혜를 합쳐가며 그 방도를 찾아나갔다. 드디여 이들은 합리적인 보온대책과 양생방법을 찾아내고 공사를 다그쳐 과일나무지지대생산기지의 건축공사를 보름만에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런 기세로 돌격대원들은 4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자갈파쇄공정으로부터 철근가공과 조립, 콩크리트치기, 양생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정연한 생산공정흐름체계를 이룬 《부재공장》을 일떠세워놓고 과일나무지지대를 쾅쾅 생산하는 위훈을 창조할수 있었다.

토지정리가 한창이던 어느날이였다. 전투장에 예상보다 엄청나게 크고 굳은 암반이 나타났다. 발파를 들이댄다고 해도 조건이 불리하여 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때 함경북도, 강원도려단을 비롯한 각 려단들에서 긴급모임이 열리였다. 불가능이란 없다는 진리를 실천으로 가르쳐준 항일혁명선렬들의 투쟁정신과 기풍을 본받아 결사전을 벌리자는 열띤 목소리들이 울려나왔고 이어 전투를 벌리기 위한 조직사업이 진행되였다. 벌떡벌떡 일어나 자기에게 그 과업을 맡겨달라고 제기하는 돌격대원들을 바라보는 려단일군들의 가슴은 저런 대원들과 함께라면 그 무엇인들 못해내랴 하는 격정으로 뜨겁게 높뛰였다.

전투대오가 편성되자 돌격대원들은 즉시 굳은 암반에 착암기를 들이대였다. 착암기소리는 낮에 밤을 이어 울려퍼졌다. 좁은 공간에서도 착암기를 억세게 틀어쥔 결사대원들은 교대별계획을 1.5배로 넘쳐 수행하기 전에는 일손을 놓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렇듯 집단적혁신의 불길은 련일 세차게 타올라 짧은 기간에 연수천m의 굴진을 끝내는 놀라운 성과가 이룩되였다.

이어 장쾌한 5만산발파의 폭음이 메아리쳐갔다. 각 려단 돌격대원들은 5만산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여 돌파구를 열어제낀 그 기세, 그 기백으로 폭약이 부족하면 함마와 정대로 막아나서는 암반들을 최단기간내에 없애기 위한 총돌격전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불가능을 모르는 신념과 의지의 강자로 삶을 빛내여가려는것은 돌격대원들의 지향이였다. 혁명의 성지건설의 나날처럼 살며 투쟁하면서 련일 위훈을 창조하고있는 함경남도려단 2.8비날론련합기업소대대의 위계복, 위계숙자매, 시공에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막힘없이 풀어나가며 전투조직과 지휘를 짜고들고있는 황해북도려단 평산군대대 참모장 신승재동무, 어려운 일을 도맡아하여 부부혁신자로 소문난 황해남도려단 벽성군대대 리재기, 리춘옥동무들…

어찌 이들만이랴. 돌격대원들모두가 한마음되여 청춘과원건설에 성실한 량심의 자욱을 새겨나갔다.

진정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위훈의 창조자들로 자라난 믿음직한 건설력량인 618건설돌격대원들의 영웅적인 투쟁에 의하여 고산땅에 거창한 전변의 새 력사가 가슴후련히 펼쳐지고있는것이다. 참으로 고산과수농장 현대화를 위한 1단계 건설의 나날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신 과업을 결사관철하려는 돌격대원들의 불타는 충정이 뜨겁게 맥박친 나날이였다.

오늘 이곳을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높고낮은 구릉지대와 골짜기들로 이루어졌던 과수밭을 없애고 그자리에 일망무제한 청춘과원을 펼쳐놓은 희한한 천지개벽의 새 모습앞에서 감탄을 금치 못해한다.

나날이 변모되는 고산과수농장의 새 모습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구상하시고 바라시는것이라면 빛나는 현실로 펼쳐놓고야마는 618건설돌격대원들의 영웅적위훈을 전하는 선군시대의 또 하나의 서사시적인 화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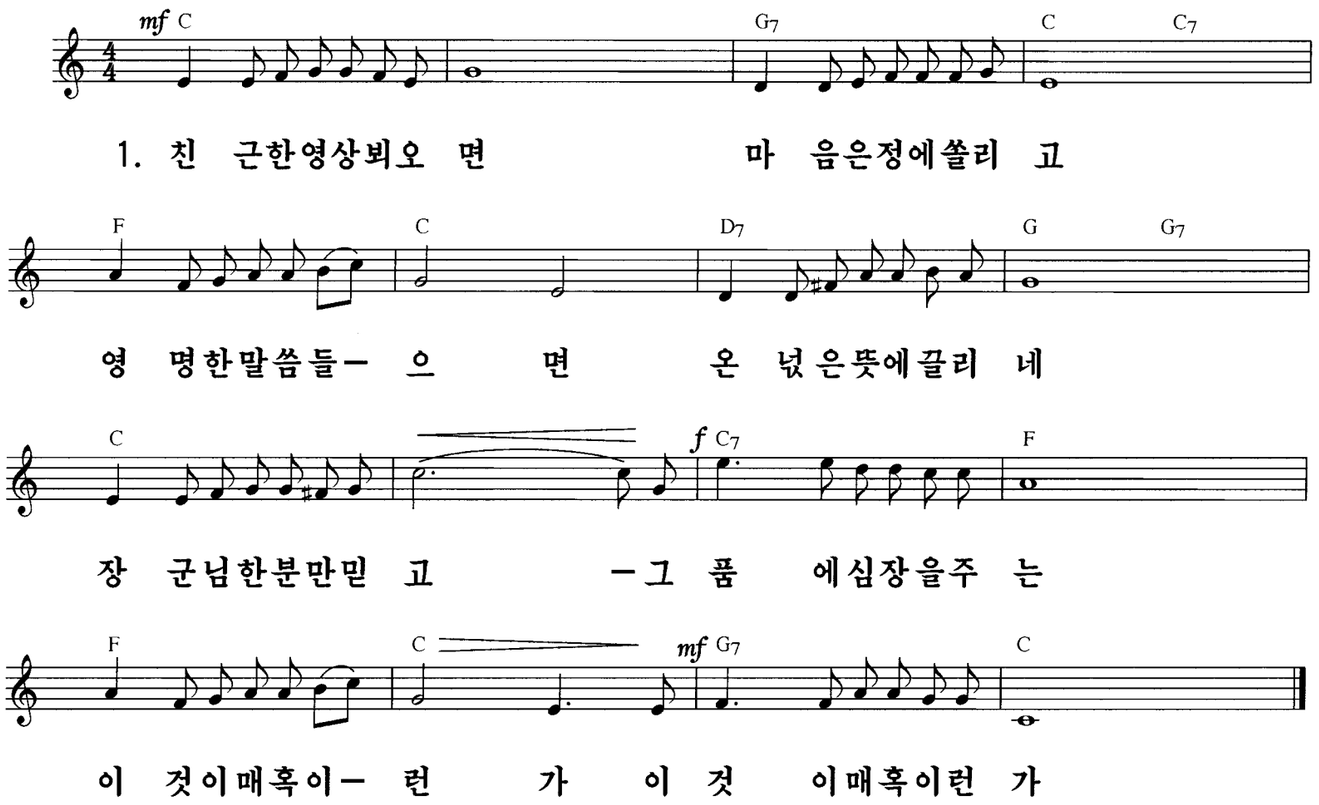
새 기적, 새 위훈의 창조자들인 618건설돌격대원들은 철령기슭에 조국의 귀중한 만년재부—현대적인 대규모과수원을 일떠세움으로써 경애하는 장군님께 승리의 보고를 드릴 그날을 위해 오늘도 폭풍쳐 내달리고있다.

본사기자 황연옥

매 혹 과 흠 모

작사 윤두근
작곡 안정호

우아하고 절절하게 (♩= 64)



2. 베푸는 사랑 고마워 따르며 운명 맡기고
이끄는 령도 위대해 받들어 한몸 바치네
장군님 떠나 못살아 꿈에도 그리워 찾는
이것이 흠모이런가 이것이 흠모이런가

3. 매혹은 흠모를 낳는 마를줄 모르는 샘물
흠모는 매혹이 터친 꺼질줄 모르는 불길
장군님 뜻과 정으로 숨결을 이으며 사는
이것이 내 삶이여라 이것이 내 삶이여라

미국은 《천안》호사건에 개입하면 할수록 사건조작 주범으로서의 흉악한 정체만을 더욱 드러내게 될뿐이다

조미군부장령급회담 우리측 단장 미제침략군측에 회답통지문 발송

【평양 6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시간이 흐를수록 《천안》호침몰사건이 철두철미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공모하여 조작한 《날조극》, 《모략극》이라는것이 더욱 적라라하게 드러나고있다.

한편 국제적판도에서 국방위원회 검열단파견에 관한 우리의 원칙적인 주장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크게 확산되고있다.

이에 바빠맞은 미제는 반공화국모략책동의 진상을 은폐해보려고 갖은 술책을 다 꾸며내고있다.

지어 이미 조락되여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유엔군사령부》산하의 《정전위원회》라는 유령기구까지 동원하여 그 무슨 《사건조사》를 진행한다 어쩐다 하며 부산을 피워대다 못해 그 《결과》를 우리측에 설명하기 위해 《장령급회담》을 하자는 터무니없는 통지문까지 보내여왔다.

미제의 이러한 행위는 리명박역적패당을 동족대결과 전쟁도발에로 적극 부추겨 저들의 대조선압살정책을 실현해보려는 간악한 흉계의 발로이다.

조미군부장령급회담 우리측 단장은 이와 관련하여 27일 미제침략군측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회답통지문을 보내였다.

이미 오래전에 조락된 유령기구인 《군사정전위원회》를 내세워 권능에도 맞지 않는 그 무슨 《조사》를 진행했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그 결과를 조미장령급회담탁에 올려놓는다는것은 더욱 황당하기 짝이 없는 처사이다.

미군측이 말하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조사결과》라는것이 날조와 모략으로 일관된 괴뢰당국의 《합동조사결과》를 그대로 대변하는것으로 될것이라는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원래 우리는 이 사건을 우리와 련계시킨 초시기부터 우리 검열단을 남조선현지에 파견한 다음 그 결과를 가지고 북남고위급군사회담을 개최할 작정이였다.

지금도 북남고위급군사회담을 개최하고 함선침몰사건의 진상을 밝히려는 우리의 립장에는 변함이 없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제안에 응한다면 그 즉시 북남고위급군사회담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에 나서게 될것이다.

실무접촉에서는 북남고위급군사회담의 성과적보장을 위하여 우리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남조선현지에 파견하는 문제, 북남고위급군사회담의 개최시기와 장소, 쌍방대표단의 구성문제 등 기타 제기되는 실무적문제들을 협의하게 될것이다.

미군측은 더이상 《유엔군사령부》의 명의로 북남관계문제에 끼여들지 말아야 한다.

미군측이 이 문제에 개입하면 할수록 미국에 대한 우리의 의혹은 더욱더 커지게 될것이다.

미제는 우리의 공명정대한 립장을 받아들이는것이 곧 《천안》호사건해결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도라는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제17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제2차 국제준비회의 진행

제17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제2차 국제준비회의가 26일과 27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인민문화궁전 회의장에는 《평화, 련대성, 사회적변혁을 위한 세계를 위하여 제국주의를 타도하자!》라는 구호가 나붙어있었다.

회의에는 디아고 알렉싼드르 페라즈 비에이라 세계민주청년련맹 위원장과 일행, 그리스공산주의청년 대표, 나미비아청년성 대표, 남아프리카아프리카민족대회청년동맹대표단, 남아프리카학생대회대표단, 네팔전국민주청년련맹대표단, 전네팔전국자유학생동맹 대표, 도이췰란드사회주의로동청년 대표, 라오스인민혁명청년동맹대표, 레바논민주청년동맹 대표, 서부사하라유제싸리오청년대표, 수리아혁명청년동맹대표단, 스리랑카사회주의청년동맹대표, 세네갈민주청년동맹 대표, 인디아민주청년련맹대표단, 전인디아청년련맹 대표, 요르단민주청년동맹 대표, 에스빠냐공산주의청년동맹 대표, 웰남호지명공산주의청년동맹대표단, 팔레스티나청년조직 대표, 꾸바공산주의청년동맹대표단, 끼쁘로스통일민주청년조직 대표, 뽀르뚜갈공산주의청년대표단, 라틴아메리카대륙대학생기구 대표, 아랍학생총동맹 대표가 참가하였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대표단과 재일본조선청년동맹대표단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회의는 《세계민주청년가》 주악으로 시작되였다.

회의에서는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대한 록화물이 방영되였다.

리용철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가 축하연설을 하였다.

그는 제17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제2차 국제준비회의가 평양에서 진행되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세계청년학생축전은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진보적청년학생들의 친선과 단결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는 뜻깊은 국제적회합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우리 나라에서 성대히 진행하도록 하시고 축전개막식에 참석하시여 자주시대의 요구에 맞게 축전운동을 더욱 발전시켜나갈데 대한 력사적인 연설을 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세계민주청년련맹이 반제련대성, 평화와 친선의 숭고한 리념밑에 지난 시기 진행된 세계청년학생축전들에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폭로규탄하고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하는 련대성활동을 적극 벌려온데 대하여 사의를 표한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조선청년학생들은 세계청년학생운동을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것이며 이번 축전이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는 진보적청년학생들의 친선과 단결, 련대성의 무대로 되게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회의는 전체회의에 이어 지역별회의로 나뉘여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제17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는 각국 민족준비위원회구성과 활동정형, 축전주최국인 남아프리카의 민족준비위원회활동정형이 통보되였다.

축전일정과 축전국제조직위원회구성에 관한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회의에서는 축전일정초안이 확정되고 축전국제조직위원회 구성기준과 활동내용이 결정되였다.

축전국제조직위원회선거는 끼쁘로스에서 진행될 제3차 국제준비회의에서 하기로 하였다.

회의는 세계청년학생축전운동을 강화발전시키려는 진보적청년학생들의 지향과 념원을 반영하여 진행될 제17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데 기여한 의의있는 국제적회합으로 되였다.

우리 나라 도서, 사진, 수공예품전람회

여러 나라에서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46돐에 즈음하여 13일부터 17일까지의 기간에 로씨야, 벌가리아, 쓰르비아, 메히꼬에서 우리 나라 도서, 사진, 수공예품전람회가 개막되였다.

전람회장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백두산3대장군의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사진들 그리고 선군조선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 우리 인민의 슬기와 재능이 깃든 수공예품들이 전시되여있었다.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전람회개막식들에 참가하였다.

개막식들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로씨야 깔루가주행정부 문화 및 관광국장은 이번 전람회는 근면하고 용감한 조선인민의 력사와 문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 선군정치의 위대한 생활력에 대하여 보여주게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벌가리아 오랴호보시 시장은 조선인민이 경제, 문화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잘 알수 있게 된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 이번 전람회는 벌가리아와 조선사이의 친선관계발전에 기여할것이다고 말하였다.

쓰르비아 베오그라드시 유럽문화쎈터 국장은 우리 인민이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며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것을 축원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의 청년 학생조직대표단, 대표들을 위한 연회 진행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의 청년학생조직대표단, 대표들을 위하여 27일 청년호텔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제17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제2차 국제준비회의와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하는 국제청년학생련대성행사들에 참가한 디아고 알렉싼드르 페라즈 비에이라 세계민주청년련맹 위원장과 일행, 여러 나라와 지역의 청년학생조직대표단, 대표들, 재일본조선청년동맹대표단 성원들이 초대되였다.

리용철 1비서를 비롯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세계 진보적청년운동의 강화발전과 여러 나라 청년조직들사이의 친선단결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조선중앙통신】

평양시 중요대상건설 적극 지원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의 수도 평양시를 더욱 웅장화려하고 사회주의조국의 위용을 과시하는 세계적인 도시로 건설해야 합니다.》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웅대한 구상에 따라 진행되는 평양시 10만세대 살림집건설과 평양민속공원건설 지원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10만세대 살림집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것은 평양시를 사회주의강성대국의 수도답게 더욱 웅장화려하게 꾸리기 위한 영예로운 일이다.

수안군, 곡산군, 황주군, 강남군의 군당책임일군들은 지난해말과 올해초 10만세대 살림집건설에 참가한 군인건설자들에게 필요한 후방물자를 원만히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에서 모범을 보이였으며 여러차례 군인건설자들의 전투장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일도 하고 혁명적인 노래도 부르면서 수도의 살림집건설에서 군인건설자들이 새로운 《평양속도》를 창조해나가도록 힘있게 고무해주었다.

기계공업성 일군들인 김장선, 박철수동무들은 여러차례에 걸쳐 단위의 종업원들과 함께 살림집건설에 필요되는 많은 자재와 부속품을 마련하여 가지고 건설장에 찾아가 군인건설자들에게 넘겨주면서 당의 의도대로 만수대거리와 같은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더 많이 일떠세우자고 군인건설자들에게 호소하였다.

함경남도 금강관리국 산하단위 일군인 김철규동무도 자기 단위의 종업원들과 함께 올해에 3차례에 걸쳐 200여점의 설비, 공구들과 많은 후방물자 그리고 생활필수품들을 성의껏 마련하여 군인건설자들에게 넘겨주었고 군인건설자들을 도와 일도 함께 하면서 그들이 10만세대 살림집건설에서 선구자로 되도록 힘있게 고무해주었다.

평양민속공원건설에 떨쳐나선 군인건설자들에 대한 원호사업도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평양시 대성구역당위원회의 책임일군은 여러차례에 걸쳐 많은 원호물자를 가지고 평양민속공원건설장에 찾아가 군인건설자들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원대한 구상을 높이 받들고 민속공원을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후손만대에 전하는 창조물로 훌륭히 건설하도록 적극 고무해주었다.

김승실동무를 비롯한 대성구역안의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은 올해 4차례에 걸쳐 성의껏 준비한 많은 원호물자를 평양민속공원건설장에 보내줌으로써 군인건설자들이 맡은 공사과제수행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였다.

이밖에도 연산군당위원회 책임일군, 평양시 형제산구역당위원회 일군인 김광선, 형제산구역종합식당 일군들인 서필순, 정조향, 형제산구역의 어느 한 단위 일군인 안옥희, 평양서포소학교 학생 량송연, 평양철도국 평양조차장객화차대 검차원 오세철, 강동군 읍에서 사는 박학주, 평안남도대흥관리국산하 광산의 일군인 한청남, 교육위원회 교육정보쎈터 연구사 림옥동무를 비롯한 각지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도 수도의 살림집건설장과 평양민속공원건설장에 대한 원호사업을 잘하고 경제선동활동도 힘있게 벌려 군인건설자들을 위훈창조에로 고무하였다.

이 땅우에 선군시대의 《평양번영기》를 펼쳐나가기 위한 길에 자신들의 순결한 량심을 다 바치는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애국적열의속에 수도의 중요대상건설장들에서는 비약과 혁신의 기상이 세차게 약동하고있다.

본사기자 정성일

새 세대의 도리

소백수정보쎈터 변진호, 김기현동무

오늘도 대성산의 주작봉마루로는 사람들의 물결이 끝없이 흐르고있다.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세워주신 영생의 높은 언덕에서 조국의 눈부신 전변을 한눈에 굽어보며 온 나라 전체 인민들과 후대들에게 참된 삶의 진리를 깨우쳐주는 항일의 선렬들,

은은한 노래선률이 숭엄함을 더해주는 주작봉마루, 백두의 성스러운 붉은기아래 선렬들과 후대들의 숨결이 뜨겁게 이어지고있는 여기 생각깊은 산마루에서 우리는 우리의 주인공들과도 만나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앞선 세대 혁명가들을 혁명선배로 존대하며 그들의 혁명정신과 투쟁업적을 더없이 귀중히 여기고있으며 선배들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충실히 계승발전시켜나가고있습니다.》

대성산혁명렬사릉 보존관리사업을 적극 도와주어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은정을 받아안은 소백수정보쎈터 변진호, 김기현동무들,

하지만 그들은 우리와 만나자마자 얼굴부터 붉히며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그것은 우리 세대의 마땅한 도리가 아닙니까?》

우리 세대의 도리!

그 한마디가 우리에게 주는 충격은 컸다.

그들은 가슴속에 늘 품고 다닌다는 자그마한 수첩을 꺼내보여주었다.

우리는 깊은 감동속에 이들의 보석같은 마음을 말없이 전하여주는 수첩의 갈피를 번져나갔다. 수첩의 첫페지는 1994년 피눈물의 그해의 만수대언덕에서부터 시작되였다.

그 나날 변진호동무를 비롯한 전문기술일군들은 음질이 맑고 높으며 음질의 로화가 전혀 없기때문에 음악의 안정성을 최상의 수준에서 확고히 담보할수 있는 전자음향설비를 제작하여 설치함으로써 만수대언덕에서 언제나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더해주는 장중한 노래선률이 울려퍼질수 있게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수첩의 갈피들은 전해주고있었다. 며칠밤을 꼬박 밝히며 기어이 완성해내고야만 전자음향설비를 안고 만수대언덕으로 오르던 그날의 이야기와 대성산혁명렬사릉에서 맞이한 1995년 첫새벽의 이야기도, 수많은 자재와 부속품들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 수백리 먼길을 웃으며 다녀온 사연도…

사리원과 신의주, 함흥과 대안, 회령 등을 찾아 어버이수령님을 더 잘 모시고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는데 적극 이바지한 김기현동무의 소중한 마음도 다 전해주고있었다.

새 세대의 마땅한 도리를 지켰을뿐인 자기들에게 은정어린 감사도 보내주시고 사랑의 선물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고마움의 큰절을 드리며 더욱더 새로운 결의를 가다듬던 그 나날도 뜨겁게 어려오는 수첩이였다.

갈피를 번질수록 우리의 가슴에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숭고한 혁명적동지애와 도덕의리가 공기처럼 흐르는 내 조국에 대한 한없는 긍지와 사랑이 꽉 차올랐다.

혁명선렬들의 념원과 뜻은 이렇게 꽃펴나고 투사들의 모습은 이렇게 빛나고있었다.

바로 이런 새 세대들이 백두에서 개척된 혁명위업을 굳건히 이어가고있었다.

대성산혁명렬사릉 계단을 내려서는 우리의 귀전에 투사들의 고귀한 넋을 가슴깊이 새겨주는 은은한 노래선률과 함께 그들이 하던 이야기가 메아리쳐왔다.

《그것은 우리 세대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본사기자 장은영

반제민전 중앙위원회 선전국

《전국민에게 보내는 호소문》 발표

《구국전선》인터네트싸이트에 의하면 반제민족민주전선(반제민전) 중앙위원회 선전국이 25일 《전국민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호소문은 다음과 같다.

전체 국민들이여!

우리 민족의 불구대천의 원쑤인 미제가 매국역적 리승만을 사촉하여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른 때로부터 어언 60년이 되였다.

지난 6.25전쟁은 미제가 전 《한》반도를 타고앉고 세계제패를 실현할 야망밑에 저들의 침략군대와 15개 추종국가군대 그리고 《국군》을 포함한 200여만의 대병력과 막대한 최신전쟁장비들을 동원하여 감행한 강도적인 침략전쟁이였으며 우리 민족에 대한 전대미문의 대살륙전쟁이였다.

전쟁 3년간 미제는 인류전쟁사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잔인하고 악독한 방법으로 수백만 우리 겨레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신성한 조국강토를 재더미로 만들었다.

오늘도 로근리와 신천을 비롯한 남북삼천리 방방곡곡에는 양키침략군에 의해 무참히 학살된 수백만의 영령들이 피의 복수를 절규하고있다.

6.25전쟁은 미제야말로 북침전쟁의 도발자이며 인간살륙을 도락으로 삼는 피에 주린 야수의 무리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미제는 전쟁 전기간 현대적인 전쟁장비들과 온갖 살륙방법을 총동원하였지만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용약 분기한 이북군민앞에 침략력사상 처음으로 대참패를 당하고 항복서에 도장을 찍고야말았다.

그러나 미제는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요구대로 이 땅에서 물러갈대신 6.25전쟁의 수치스러운 참패를 만회해보려고 반세기이상 끊임없는 무력증강과 무모한 전쟁도발책동을 일삼으며 북침의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리고있다.

특히 미제는 새 세기에 들어와 저들의 식민지통치에 파렬구를 내는 6.15자주통일시대의 거세찬 흐름을 가로막기 위해 갖은 책동을 다하였으며 마침내 리명박친미보수《정권》을 조작함으로써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에로 나아가던 《한》반도의 대세를 대결과 전쟁으로 되돌려놓았다.

리명박역도의 명줄을 틀어쥐고 남북관계를 파탄낸 미제는 지금이야말로 제2의 6.25전쟁을 도발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북침의 도화선에 또다시 불을 달려고 발광하고있다.

보라!

《천안》호침몰사건을 조작하고 그것을 구실로 하늘과 땅, 바다에서 북침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무분별한 광기를.

미제는 주《한》미군과 《국군》을 총동원하여 군사분계선을 비롯한 전지역에서 매일같이 총포성을 울리며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있다.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하고있는 서해로는 하나의 전쟁을 치르고도 남을 핵항공모함집단이 밀려들고있다.

함선침몰사건조작을 통해 일본을 굴복시켜 북침전쟁수행의 중요한 전략적거점인 오끼나와미군기지를 더 든든히 거머쥔 미제는 여기에 스텔스전투기들과 최신전쟁장비들을 끌어다놓고 출격태세에 진입시켰다.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에 환장한 리명박호전집단은 미제의 부추김밑에 《전쟁불사》를 부르짖으며 정세를 최악의 상태에로 몰아가면서 도발적인 《6.25전쟁 60년기념사업》이라는것을 도처에 벌려놓고 극도의 대북적대의식과 전쟁열을 고취하고있다.

서울을 비롯한 전지역에서 전쟁연습소동들이 매일같이 벌어져 온 이남땅은 전쟁전야를 방불케 하고있다.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험계선에 이른 이 땅의 엄혹한 정세는 함선침몰사건을 구실로 벌리는 미제와 리명박패당의 전쟁광기가 극도에 이르고있다는것을 웅변해주고있다.

《한》반도는 말그대로 달아오른 화약고우에 있으며 전쟁발발은 이제 시간문제로 되고있다.

전체 국민들이여!

6.25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력사의 교훈을 새겨준 날이다.

허나 미제와 리명박패당의 광란적인 북침소동으로 하여 바야흐로 제2의 6.25가 재현될 엄혹한 현실이 펼쳐지고있다.

이 땅에서 또다시 전쟁이 터지면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지난 6.25전쟁과는 비교도 할수 없는 엄청난 핵참화가 이 땅에 들씌워지게 될것이다.

전후방이 따로없는 현대전에서 재난을 당할것은 전체 우리 민족이요, 삼천리조국강토이다.

미제가 북침을 하면 남쪽땅도 무사할수 없다.

지난 6.25전쟁시기 미제는 저들이 강점한 이남땅에서도 민간인학살을 수없이 감행하였고 포격과 폭격도 남과 북을 가리지 않았다.

미제의 과녁에는 언제나 우리 남과 북의 전체 조선민족이 들어있다.

민족의 운명과 미래를 누구보다 사랑하며 평화와 통일을 열렬히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미제의 날강도적본성을 잊지 않은 사람이라면 어찌 미제와 리명박패당이 몰아오는 핵재앙앞에서 수수방관할수 있겠는가.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준엄한 정세는 전국민에게 죽음이냐, 삶이냐 하는 엄숙한 물음에 대답할것을 요청하고있다.

전체 국민들이여!

미제와 리명박호전집단이 몰아오는 전쟁의 재난을 막아야 할 주인은 우리들이다. 우리 민중에게는 전쟁을 막고 평화를 수호할 막강한 힘이 있다.

겨레의 생사존망이 경각에 이른 이 시각 민족과 시대앞에 지닌 사명과 임무를 다할 때는 왔다.

전국민은 《한》미호전광들의 무분별한 북침전쟁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거족적인 성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

미제는 6.25북침전쟁도발의 원흉이며 오늘 또다시 제2의 6.25를 망상하는 우리 민족의 백년숙적, 불구대천의 원쑤이다.

전국민이 분기하여 미제의 침략전쟁야망을 단호히 짓부셔버리자!

우리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광란적으로 감행되는 미국과 그 주구들의 북침전쟁연습을 결사반대하자!

전쟁의 온상이고 온갖 불행과 고통의 화근인 미제침략군을 몰아내기 위한 투쟁에 총궐기하자!

도처에서 미군기지철폐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고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나가자!

반미자주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미국의 군사적강점과 식민지배를 끝장내기 위해 과감히 싸워나가자!

리명박역적패당은 미제의 《한》반도지배야망의 추악한 사환군이며 북침전쟁도발의 돌격대이다.

미제의 하수인이 되여 온 겨레에게 핵전쟁의 참화를 들씌우려는 가증스러운 리명박패당에게 준엄한 철퇴를 안기자!

특대형모략극인 함선침몰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파헤쳐 분별없이 날뛰는 리명박호전광들을 전국민의 이름으로 단호히 징벌하자!

반역의 무리들에게 파멸을 선고한 《지방선거》승리의 기세로 《한》미호전집단의 북침전쟁기도를 저지파탄시켜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힘으로 지켜내자!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정견과 신앙, 재산의 유무, 당파와 소속의 차이를 초월하여 모두다 반전평화수호투쟁의 봉화를 세차게 지펴올리자!

《국군》사병들이여!

지금 당신들은 전쟁광신자들의 희생물이 되여 무고한 죽음을 강요당하고있다.

46명의 《천안》호사병들을 서해에 수장시킨 미제와 그 주구들이 이제는 당신들에게 영정사진과 유서까지 강요하며 죽음터로 내몰려 하고있다.

미국의 용병, 매국《정권》의 파수군으로 개죽음을 당하는 치욕스러운 운명을 어떻게 더이상 용납할수 있겠는가.

사병들은 양키 미제의 값싼 대포밥이 되지 말라!

당신들의 생명을 파리목숨만큼도 여기지 않는 역적패당에게 총부리를 돌리라!

동족대결을 강요하는 《한》미호전광들의 북침전쟁책동을 결사반대하자!

이북의 선군정치는 《한》반도 핵전쟁저지와 평화수호의 확고한 담보이다.

전국민은 평화의 보검이고 민족의 긍지인 이북의 선군정치를 적극 지지옹호하자!

이북의 강력한 전쟁억제력을 민족의 재부로 간직하고 신심과 락관에 넘쳐 반미, 반전, 반리명박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자!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은 평화와 통일의 기치이다.

6.15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전쟁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며 통일을 앞당기자!

《우리 민족끼리》리념밑에 민족공조, 평화공조, 통일공조로 역적배들의 《외세공조》, 《전쟁공조》, 《분렬공조》를 산산이 짓부셔버리자!

자기의 힘을 확신하고 일치단결하여 싸우는 우리 민중의 앞에는 언제나 승리만이 있을것이다.

모두다 비상한 각오와 필승의 신념을 안고 하나된 힘으로 미국과 친미호전광들의 무모한 북침전쟁책동을 짓부시고 평화와 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

【조선중앙통신】

대결미치광이의 악의에 찬 넋두리

최근 괴뢰통일부 장관 현인택이 극단적인 대결악담들을 여느때없이 뻔질나게 줴쳐대고있다.

지난 25일 《유로뉴스TV》방송기자와의 《회견》에 나타난 현인택은 《천안》호가 《북의 어뢰공격》으로 침몰되였다는 날조설을 또다시 입에 올리면서 그 무슨 《사죄》니, 《책임자처벌》이니 하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수작을 늘어놓았다. 지어 역도는 《도이췰란드식통일》을 망상하면서 감히 우리의 존엄까지 걸고들었다. 이자의 언동은 우리에 대한 중대도발이며 추호도 용납할수 없는 최악의 도전이다.

현인택이 반공화국적대의식이 골수에 꽉 들어찬 극단적인 대결미치광이라는것은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없다. 리명박《정권》의 출현을 앞두고 《통일부폐지》를 집요하게 떠들어대고 희세의 북남대결각본인 《비핵, 개방, 3 000》을 고안해낸자가 바로 현인택이다. 이런자가 뻔뻔스럽게 《통일부》 장관자리에 들어앉아 한짓이란 줄곧 《북핵페기》와 대결일변도적인 《원칙고수》를 떠들며 반공화국대결과 제재를 추구한것뿐이다. 현인택역도가 북남관계를 완전히 풍지박산내고 전쟁위기를 초래한 기본장본인이라는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이다.

이번에 역도가 함선침몰사건의 원인이 《북의 어뢰공격》에 있다고 다시금 고아대면서 우리에게 《사죄》니 뭐니 한것은 가소롭기 그지없다. 함선침몰사건이 미국과 괴뢰들이 조작한 반공화국모략극이라는것은 최근 남조선 각계와 해외에서 사건의 《조사결과》와 이른바 《결정적증거》들을 반박하고 뒤집는 사실자료들과 과학적인 연구결과, 증언들이 련이어 나오고있는 사실이 립증해주고있다. 함선침몰사건과 관련하여 사죄하고 처벌받아야 할자들은 다름아닌 사상 류례없는 특대형모략극을 꾸며 동족을 모함하고 전쟁위험을 고조시키는 리명박패당이다. 그런데 현인택역도가 이미 거덜이 난 사건을 아직도 우리와 련결시키려고 모지름을 쓰면서 도리여 제편에서 우리더러 《사죄》하라고 샷대질까지 했으니 이 얼마나 파렴치한자인가. 역도의 망발은 오히려 우리 군대와 인민의 치솟는 분노와 증오심만 더욱 북돋아줄뿐이다.

현인택역도는 함선침몰사건과 관련한 궤변을 늘어놓는것으로도 부족하여 그 무슨 《도이췰란드식통일》을 운운하면서 우리에 대해 입에 담지도 못할 악담을 서슴없이 지껄여댔다. 현인택이 줴친 망발은 반공화국적대의식이 골수에 박힌 극악한 대결분자의 정체를 다시금 드러낸것으로서 우리의 존엄높은 체제에 대한 전면부정이고 로골적인 전쟁선포이다.

우리 인민은 인민대중중심의 주체의 사회주의제도를 열렬히 사랑하고있으며 혁명의 수뇌부두리에 굳게 뭉쳐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안고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총진군을 힘차게 다그치고있다. 민족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륭성번영의 시대를 맞이하고있는 우리 공화국의 눈부신 현실앞에 당황망조한 현인택역도는 우리의 영상에 먹칠을 하고 어떻게 하나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야망을 실현해보려고 미친듯이 발악하고있다.

남조선의 력대 《통일부》 장관들가운데서 이자와 같이 동족대결에 환장이 되여 분별없이 날뛴 인간쓰레기, 매국역적은 없었다. 현인택과 같은 대결미치광이가 《통일부》 장관자리에 앉아있으니 북남관계가 파국에 처하고 전쟁위험이 고조될수밖에 없는것이다. 남조선 각계에서 현인택과 《통일부》에 대해 《반북대결선봉장》, 《〈국방부〉인지 〈국정원〉인지 알수 없는 〈통일포기부〉, 〈반통일부〉》라고 비난, 조소하고있는것은 우연치 않다.

역도가 북남관계를 전면적인 파국상태에 몰아넣은 저들의 죄악을 가리우고 반통일적인 《대북정책》을 합리화하며 끊어져가는 명줄을 조금이라도 더 부지하기 위해 발악하고있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행위이다. 제 죽을줄 모르고 련일 대결넉두리를 늘어놓고있는 현인택의 추태는 지금 력사에 똑똑히 기록되고있다.

우리 민족내부에 현인택과 같은자가 있다는것은 민족의 수치이며 비극이다. 현실은 남조선인민들로 하여금 북남관계를 회복하고 전쟁의 위험을 막자고 해도 현인택과 같은 민족의 화근을 단호히 제거해버릴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는 북남관계를 파탄시키고 우리의 존엄까지 모독한 현인택역도를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며 무자비하게 징벌할것이다.

최 철 순

6.15의 주로를 따라 달리는 남녘민심

6.15공동선언의 정당성과 진리성을 확신하면서 공동선언이 밝히는 길을 따라 자주통일의 한길로 힘차게 달려나가려는것은 남녘인민들의 신념이고 의지이다.

6.15공동선언발표 10돐을 맞으며 남조선 각지에서 수많은 각계 단체들과 인민들의 참가속에 다채로운 행사들이 성황리에 진행된것도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지난 13일 6.15공동선언발표 10돐기념 《평화통일범국민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였다.

대회장인 서울광장은 간밤에 내린 비로 질벅했지만 참가자들로 꽉 들어찼다.

3 000여명의 각계층 인사들이 모인 대회장은 모략적인 함선침몰사건을 계기로 조선반도에 전쟁위험을 고조시키는 괴뢰당국에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전환》과 함께 《6.15정신으로 되돌아갈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열기띤 함성으로 진동하였다.

6.15공동선언 10돐 행사준비위원장은 대회에서 한 연설에서 《반세기를 이어온 대결을 끝내기 위한 남과 북의 력사적인 선택이 바로 6.15공동선언이였다.》고 하면서 《남과 북은 6.15공동선언의 빛을 따라 대화하고 협력하여 난관을 극복해왔다. 이제 6.15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웨쳤다. 이어 그는 《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 이 땅에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지침이 모두 무시되고 리념적극단주의와 정치, 군사적대결주의가 란무하고있다.》고 울분을 터뜨리면서 《우리는 현 〈정권〉이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하였다.

행사과정에 《다시 6.15공동선언을 리행하자.》, 《전쟁반대》, 《조선반도평화를 실현하자.》는 함성이 계속 터져나왔고 아이들로부터 대학생, 로인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통일기를 흔들면서 《6.15》를 련이어 웨치여 행사분위기를 고조시키였다.

행사에 참가한 민주당, 민주로동당 등 야당인사들도 이번 《지방자치제선거》결과가 증명해주었듯이 《6.15로 돌아와야 조선반도에 평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민중과 함께 6.15선언을 실현시켜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인사들과 《평화를 만드는 녀성회》상임대표 등도 《〈선거〉패배이후에도 당국은 민중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있다. 민중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통일과 평화를 위협하는 당국에 맞서 강력한 투쟁으로 이어가자.》고 열변을 토하였다.

이날 광장의 곳곳에서는 사진전시회, 북녘특산물판매, 통일쌀떡치기 등의 행사들도 벌어져 6.15의 의미를 더욱 뜨겁게 되새겨주었다.

6월 15일 서울의 조계사에서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의 주최로 민주당, 민주로동당을 비롯한 야당대표들과 시민사회단체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6.15공동선언 10돐기념 평화통일민족대회》가 열렸다.

여기에서는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명의로 《오늘날 난국을 타개하고 평화를 수호하며 조국통일로 가는 유일한 출로는 6.15공동선언정신을 실천하는데 있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이 발표되였다.

이보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학술본부, 언론본부의 공동주최로 《6.15공동선언과 〈천안〉호사태 그리고 평화협정》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진행되였다.

참가자들은 6.15공동선언발표이후 북과 남사이의 언론, 학술분야에서 이룩된 협력, 교류사업들에서의 경이적인 성과들에 대하여 긍지높이 총화하고 그와 너무도 상반되는 현북남관계의 파국적현실에 분노를 금치 못하였다. 그들은 북남협력과 교류를 절대로 멈추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땅에 다시한번 6.15의 새 력사를 만들자.》고 호소하였다.

토론회에서는 《6.15정신에 따라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온 겨레의 대행진을 결단코 멈출수 없다.》는 내용의 결의문이 발표되여 참가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6.15공동선언발표 10돐을 맞으며 남조선에서 벌어진 통일행사들가운데서 특별히 주목을 끈것은 《통일마라손대회》이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는 창원에서 6.15공동선언리행을 요구하는 엽서띄우기, 통일기손수건만들기 등의 행사들을 진행하고 이어 참가자전원이 6.15㎞를 달리는 《통일마라손대회》를 열었다.

대전에서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 우리 겨레 하나되기 대전, 충남운동본부, 《전교조》 대전지부 등이 약 2 000여명의 대전시민들과 청소년들이 참가한 《대전통일마라손대회》를 공동주최하였다.

대회장에는 《6.15공동선언리행은 우리의 통일바람입니다》라는 구호와 함께 6.15공동선언전문과 통일기가 새겨진 대형현수막이 펼쳐져있었다.

대회는 6.15공동선언전문랑독으로 막을 올렸다. 참가자들의 잔등에는 선수번호대신 통일기와 함께 《통일되여 백두산에 가고싶다》 등의 글들이 새겨져있었다. 달린 거리는 역시 6.15㎞였다. 《선수》들은 통일의 주로를 달리는 심정으로 뛰고 또 뛰였다.

더욱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한것은 시력을 잃은 10여명의 사람들까지 서로 손을 맞잡고 전구간을 쉬임없이 달린것이다. 비록 눈은 안보여도 마음속으로 6.15가 밝혀준 통일의 주로를 바라보며 달리는 그들을 보고 시민들은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냈다고 한다. 남조선 각지에서 벌어진 《통일마라손대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6.15를 지키고 통일의 그날을 향해 끝까지 달리려는 남녘겨레의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사실들은 6.15공동선언이 남녘인민들의 가슴속에 굳게 자리잡고있으며 그 어떤 반통일책동도 공동선언을 리행하여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이룩하려는 그들의 열망과 의지를 막을수 없다는것을 실증해주었다.

본사기자 리 효 진

참여련대에 대한 탄압소동을 단죄

시민사회단체들 기자회견

남조선의 인권단체련석회의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23일 서울의 《정부》종합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괴뢰검찰의 참여련대에 대한 탄압을 단죄하였다.

단체들은 검찰당국이 《천안》호사건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론의를 요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발송한 참여련대의 활동에 대해 《리적행위》라느니 뭐니 하며 수사놀음을 벌려놓았다고 규탄하였다.

검찰의 의도는 참여련대에 《보안법》의 굴레를 씌워 《빨갱이단체》로 몰아 탄압하려는데 있다고 단체들은 까밝혔다.

단체들은 참여련대가 민심을 대변하여 유엔에 의견을 밝힌것은 정당하다고 하면서 당국의 탄압은 명백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민주적폭거라고 비난하였다.

단체들은 당국이 참여련대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지하고 함선침몰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밝히려는 민중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역적패당의 반인민적정책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보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27일 다음과 같은 보도 제959호를 발표하였다.

최근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의 북침전쟁도발책동이 극히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단계에 이르고있다.

지난 6월 9일부터 22일사이에 괴뢰들은 경기도와 남조선강원도일대를 작전지역으로 하여 실탄을 쏘아대며 지상작전훈련을 벌렸고 조선동해해상에서는 괴뢰해군 제1함대와 해양경찰이 합동으로 구축함, 초계함을 비롯한 10여척의 전투함선들과 직승기들을 동원하여 폭뢰투하와 함포사격연습을 감행하였다.

이와 함께 괴뢰들은 조선서해에 미핵항공모함전단을 끌어들여 극히 도발적인 련합해상전쟁연습을 기도하고있으며 우리 해상을 봉쇄하고 우리 선박들을 차단, 수색하는 《대량살상무기전파방지구상》연습도 강행하려 하고있다.

한편 괴뢰패당은 함선침몰사건을 구실로 《국방개혁기본계획》과 북침각본들을 전쟁도발에 대비하여 대폭수정하고 괴뢰군부가 직접 나서서 남조선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과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전쟁준비를 위한 《안보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며 지어 전면전쟁을 가상한 《전쟁씨나리오》공모놀음까지 벌리고있다.

괴뢰호전광들의 이러한 무분별한 전쟁소동은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지향에 대한 전면도전이고 우리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며 로골적인 군사적대결선포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괴뢰호전광들의 무모하고 광란적인 북침전쟁도발책동을 조선반도에 제2의 6.25전쟁을 몰아오는 천추에 용납 못할 반민족적범죄행위로 락인하면서 이를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막다른 위기에 빠질 때마다 충격적인 사건을 조작하여 그를 구실로 전쟁을 도발하는데서 출로를 찾는것은 제국주의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리명박패당이 바로 그 위험천만하고 케케묵은 악습을 되풀이해보려 하고있다.

친미사대매국행위와 동족대결, 반인민적악정으로 민심의 버림을 받고 극도의 궁지에 몰리우게 된 괴뢰역적패당은 미국상전의 배후조종밑에 충격적인 함선침몰사건을 조작하고 이를 우리와 억지로 련결시켜 그 무슨 《북풍》으로 《지방자치제선거》고비를 넘겨보려다가 대참패를 당하게 되자 《응징》이요, 《단호한 대처》요 뭐요 하면서 북침전쟁소동에 더욱 광분하고있다.

현실은 괴뢰역적패당이야말로 민족의 통일도, 겨레의 운명도 안중에 없이 제죽을줄 모르고 날뛰는 철저한 미제의 하수인, 극악무도한 전쟁미치광이라는것을 더욱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온 겨레는 미제의 사촉밑에 전쟁광기를 부리며 이 땅에 대재앙을 몰아오는 역적패당을 결코 용서치 않을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은 동족대결과 전쟁도발책동에 광분하는 리명박패당을 단호히 쓸어버리고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조선반도평화협정체결을 주장

미국 감리교회대표 1 000여명이 13일부터 16일까지 모임을 가지고 조선반도평화협정체결과 조미관계정상화를 촉구하는 발의안을 채택하였다.

그들은 발의안에서 미국이 조선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전쟁을 종식시키며 평화적인 외교정책을 수립할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미국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는데 이바지할것을 그들은 요구하였다.

그들은 이 발의안을 미국대통령과 국무장관에게 보내기로 하였다.

본사기자

국제사회의 공정한 여론에 대한 도전

함선침몰사건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회부한 괴뢰보수패당의 망동은 지금 해내외 온 겨레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함선침몰사건을 《북의 어뢰공격》에 의한것으로 조작한 모략적인 《조사결과》를 발표한데 이어 미일상전과 야합하여 사건을 유엔에 끌고가려고 획책해온 괴뢰당국은 지난 5일 우리를 《국제평화와 안전의 위협》으로 몰아대며 《엄중하게 대응》해줄것을 《요청》하는 그 무슨 《서한》이라는것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발동하여 함선침몰사건을 국제화함으로써 반공화국제재와 압력을 일층 강화하려는 보수패당의 도발적책동은 본격적인 실천단계에 들어섰다.

더우기 격분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괴뢰당국이 지난 9일 유엔에 함선침몰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설명한다는 구실밑에 이른바 《민군합동조사단》의 어중이떠중이 10여명을 파견한것이다. 이자들은 괴뢰정부의 각본에 따라 유엔본부회의실에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성원국대표들을 대상으로 그 무슨 《증거자료》들과 《조사결과》에 대한 설명놀음을 벌리였다.

역적패당이 괴뢰해군함선침몰사건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회부한것은 국제무대에서까지 동족모해를 구걸하는 추악한 반민족적범죄행위로서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그런데 괴뢰들이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민군합동조사단》패거리들을 유엔에 보내여 그 무슨 《설명회》니 뭐니 하는것을 벌린것은 우리에 대한 또 하나의 불순한 도발이다. 그것이 함선침몰사건을 미국과 괴뢰들의 파렴치한 날조극으로 폭로단죄하는 국제사회의 공정한 여론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폭로된바와 같이 리명박일당은 함선침몰사건을 외세와의 공조로 동족을 해치기 위한 계기로 삼고 국제무대에서 우리를 계속 악랄하게 헐뜯으며 반공화국《제재강화》와 《공동보조》,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의 《협력》을 상전들에게 적극 구걸하였다.

보수패당은 주변나라들과의 《3개국수뇌자회담》이니, 《쌍무회담》이니 하는것들을 벌려놓고 《대북제재의 동참》과 《대조선포위망구축》에 대한 협력을 청탁하였다. 지어 유럽나라들에까지 찾아가 그 무슨 《전방위외교》, 《설득외교》를 한다고 복닥소동을 피웠다.

얼마전에는 리명박역도가 싱가포르에서 함선침몰사건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회부하였다고 떠들어대면서 《대북제재》에 국제사회가 적극 참가해달라고 구차스럽게 놀아댔다.

하지만 괴뢰해군함선침몰사건이라는것이 철두철미 보수패당이 외세와 짝자꿍이하여 꾸며낸 희세의 특대형사기모략극이라는것은 세계의 면전에서 낱낱이 드러났다.

괴뢰패당이 《조사결과》발표후 지금까지 하루가 멀다하게 《〈천안〉호외교전》이라는것을 벌리며 우리에게 강도높은 제재를 가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있지만 그것은 세계의 공정한 여론으로부터 랭대를 받고있다. 보수패당이 우리 국방위원회 검열단의 현지확인은 기를 쓰고 반대해나서면서도 일부 나라들에 기대를 걸고 조사단을 파견해달라고 했는데 그것 역시 혹을 떼려다가 붙인격이 되고말았다. 함선침몰사건과 관련한 《증거자료》들을 조사한 로씨야전문가들은 그것이 조선이 《사건에 관여한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립증이 약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이런 사정으로 하여 괴뢰당국이 함선침몰사건을 유엔에 끌고갔다지만 남조선언론들과 외신들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의 《대북결의안》채택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평하고있다.

지금 남조선언론들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조치가 《구속력이 없는 의장성명이 아니면 보도성명과 같이 기록에도 남지 않는 더 낮은 수준으로 될수도 있다.》, 《알맹이없는 솜방망이에 그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보도하고있다. 함선침몰사건의 책임을 기어코 우리에게 넘겨씌움으로써 외세의 힘을 빌어 국제적규모에서 반공화국제재의 도수를 더한층 높이려는 괴뢰들의 모략책동은 물거품이 되고있다.

극도의 불안감에 사로잡힌 리명박일당은 유엔에서 미일상전의 지원밑에 함선침몰사건의 진상을 계속 흑막속에 가리우고 세계여론을 오도하여 반공화국압살야망을 어떻게 하나 실현할 흉심밑에 그 무슨 《증거자료》라는것들을 꿍져진 《민군합동조사단》패거리들을 유엔에 파견하여 설명이니 뭐니 하며 소란을 피운것이다. 괴뢰들이 함선침몰사건《조사결과》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아보려고 모지름을 쓰고있지만 서툴기 짝이 없게 꾸며진 그런 유치한 모략설에 건전한 리성과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가 동조해나서겠는가.

역적패당은 심히 오산하고있다. 그들이 외세와 야합하여 우리에게 국제적인 압력을 가해보려는것이야말로 가소롭기 짝이 없는 망동에 지나지 않는다. 괴뢰들이 외세를 꺼들여 벌려놓으려 하는 《제재강화》소동은 파탄을 면할수 없다.

누워서 침뱉기라는 말이 있다. 리명박패당은 저들이 추구하는 불순한 반공화국대결소동이 어떤 후과를 빚어낼것인지 똑똑히 가려보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

자주권을 생명처럼 여기고있는 우리는 이미 천명한대로 함선침몰사건과 관련한 괴뢰패당의 반공화국모략소동을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그에 무자비하고도 강력한 징벌로 대응해나갈것이다.

괴뢰들은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

본사기자 심 철 영

반제투쟁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님의 업적을 놓고보면 그 하나하나가 다 세상사람들의 찬탄을 불러일으키는 빛나는 업적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한생은 반제투쟁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인류의 자주위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희세의 정치가, 견결한 반제투사의 빛나는 한생이였다.

세계혁명은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며 인류의 자주위업은 온갖 반동세력들과의 심각한 대결을 동반한다. 때문에 국제반동들을 제압하고 세계혁명과 인류의 자주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자주성을 옹호하는 진보적력량을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시대의 흐름과 자주위업발전의 합법칙성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시여 세계반제자주력량을 강화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제반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완벽하게 밝혀주시였으며 반제투쟁에로 세계 진보적인민들을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주체55(1966)년 1월 꾸바의 수도 아바나에서 3대륙인민단결기구가 창설되고 그 다음해에 이 기구의 기관리론잡지 《뜨리꼰띠넨딸》이 창간되였다. 2개월에 한번씩 에스빠냐어, 프랑스어, 영어 등으로 잡지를 발간해야 하는 잡지사앞에는 여러가지 과업들이 제기되였다.

당시 국제정세는 매우 복잡하였다.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이 강화됨에 따라 여러 나라와 지역들에서 쫓겨난 제국주의자들은 잃어버린 식민지들을 되찾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발악하였다. 그들은 사회주의나라들과 진보적인 나라들을 반대하는 간섭과 침략행위를 로골적으로 감행하였으며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민족해방운동을 야수적으로 탄압해나섰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책동으로 하여 세계도처에서 전쟁의 불집이 터지고 평화가 파괴되고있었다. 조성된 정세는 반제투쟁을 더욱 강화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었다.

이에 옳바른 대답을 주는것은 3대륙인민단결기구의 기관리론잡지인 《뜨리꼰띠넨딸》앞에 나선 절박한 과제였다.

잡지사일군들은 한세대에 두 제국주의강적을 타승하시고 일찌기 반제투쟁에 관한 사상과 리론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만이 이 문제에 옳바른 해답을 주실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주체56(1967)년 8월 위대한 수령님께 《뜨리꼰띠넨딸》창간호에 실을 론설을 집필해주실것을 요청하여 그이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게재한바 있는 그들로서는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을 령도하시며 바쁘신 나날을 보내시는 그이께 다시금 요청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일부 나라 지도자들에게 그에 대한 글을 써보내줄것을 요청하는 서한들을 보내였다. 그러나 서한을 보낸 후 오랜 기일이 지났지만 누구도 글을 써보내주지 않았다. 그래서 잡지사일군들은 망설이던 끝에 우리 나라의 해당 부문 일군을 만나 위대한 수령님께서 시간이 허락되실 때 조성된 현 국제정세에 대처하여 반제투쟁을 강화할데 대한 로작을 또다시 집필하여주실것을 간절히 부탁하였다.

우리 일군들의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의 소망을 깊이 헤아리시고 시간을 내시여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집필하시여 잡지에 내도록 해주시였다.

잡지사일군들은 커다란 감격과 흥분속에 주체57(1968)년 10월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잡지에 두드러지게 편집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작에서 혁명에서 먼저 승리한 나라들은 자기의 경험과 모범, 자기의 정치, 경제, 군사적힘으로 아직 승리하지 못한 나라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원하며 혁명이 승리하지 못한 나라 인민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반제투쟁을 벌려 승리한 다른 나라 혁명을 보위하면서 자기 나라 혁명의 승리를 앞당길데 대한 사상을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매개 나라의 객관적혁명정세의 요구와 구체적실정에 맞게 혁명의 시기와 투쟁형태, 방법을 선택할데 대한 사상, 3대륙인민들이 반제통일전선을 형성하여 단합된 힘으로 반제투쟁을 벌리며 작은 나라들이 사대주의사상을 버리고 반제투쟁에 적극 떨쳐나설데 대한 사상 등 매개 나라 혁명과 반제공동투쟁에서 나서는 제반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은 반제자주를 위한 3대륙인민들의 투쟁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고 전반적세계혁명운동을 새로운 앙양에로 고무추동하는 불멸의 전투적기치였다.

로작에서 천명된 위대한 반제혁명사상과 심오한 리론은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심장을 억세게 틀어잡았다. 세계 혁명적인민들은 로작을 정력적으로 탐독하면서 반제투쟁에 적극 떨쳐나설 결의를 가다듬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의 반제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심으로써 빛나는 실천적모범으로 세계인민들의 반제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시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의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를 산산이 깨버리시였으며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시였다. 이것은 세계인민들에게 작은 나라라 하더라도 견결한 반제정신을 간직하고 단결하여 투쟁한다면 어떠한 강적도 타승할수 있다는 신심을 안겨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반제투쟁에서 나서는 제반 문제들을 명철하게 밝혀주심으로써 세계적판도에서 반제투쟁이 더욱 강화되도록 하시였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민족적독립과 해방을 위한 피압박인민들의 투쟁이 날로 확대강화되는 속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3대륙에서 근 30개 나라들이 민족적독립을 이룩하였다. 여기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반제혁명사상과 불면불휴의 로고가 슴배여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도 세계인민들을 반제투쟁에로 이끄시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다.

주체83(1994)년 6월 벨지끄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랭전종식후 일부 나라 공산당, 로동당들이 동요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한쪽으로는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적공세가 더욱 우심해지고있는 정세속에서 당활동, 반제투쟁을 어떻게 벌려야 할지 몰라 고충을 겪고있던 그에게 있어서 그와 관련한 옳바른 대답을 찾는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절실한 문제로 되였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옵고 가르치심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심정을 헤아리시고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시간을 내시여 그를 접견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금 적지 않은 사람들은 미국사람들이 《국제헌병》노릇을 하고있는것을 보고도 감히 욕을 하지 못하고있다고, 어떤 나라 사람들은 미국사람들한테 업수임을 당하면서도 참기만 하고있으며 겁이 나서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리지 못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자주성을 견지하고 제국주의나라들과 단호히 맞서싸울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벨지끄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이 반제투쟁을 더욱 강화하며 단결할데 대한 문제를 놓고 그처럼 마음쓰시면서 커다란 로고를 기울이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고매한 풍모와 위인상에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접견을 받고 명확한 투쟁방향과 방법을 받아안은 그는 앞으로 조선을 다시 방문하리라고 마음먹었다.

그런데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렇게 갑자기 서거하실줄이야 누가 알았으랴. 그는 비통함을 금치 못해하였다.

그는 진정 **김일성**동지의 한평생은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오로지 반제자주위업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분투하시다 순직하신 영웅위사시적한평생이라고 칭송하면서 력사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세계반제자주위업에 기여하신 불멸의 공적을 영원히 금문자로 기록해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인류의 반제투쟁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은 오늘도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심장속에 주체의 태양의 모습으로 영생하신다.

세계 혁명적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반제투쟁의 길을 따라 더욱 힘차게 전진해나아갈것이다.

본사기자 조성철

핵위협의 장본인은 누구인가

최근 미국이 지난 조선전쟁이후에도 조선반도 《유사시》에 원자탄을 사용하려 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미국신문 《캔사스씨티 스타》가 전한데 의하면 1954년 미국 무성과 국방성, 미합동참모본부, 미중앙정보국, 미륙해공군우두머리들의 참가밑에 진행된 전략회의에서 조선반도《유사시》 원자탄공격을 예견한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한다. 그 내용을 보면 원자탄공격목표는 우리의 군사시설물들과 길림, 청도, 심양, 천진 등 우리 나라와 린접한 중국의 여러 지역들이다. 당시 미국은 원자탄공격과 함께 중국의 해안봉쇄, 대만을 앞세운 대규모 중국본토공격, 해남도점령계획도 세웠다고 한다. 미국은 1969년에도 우리에 대한 핵공격과 그 피해까지 예상한 《프리덤 드롭》이라는 비상계획을 짜놓았다. 이로써 조선반도에서 진짜핵위협이 누구로부터 오는가 하는것이 명백히 밝혀졌다. 이번에 드러난 사실자료들은 미중앙정보국에서 나온것이다. 그런것만큼 미국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을것이다.

력사적으로 놓고볼 때 미국은 핵위협의 가해자이고 우리는 그 피해자이다. 우리 나라는 수십년동안 미국의 끊임없는 핵위협을 받아왔다. 세계적으로 우리 인민만큼 핵위협을 직접적으로 오래동안 당해온 민족은 없다. 이미 지난 조선전쟁때에 우리 인민에게 핵공갈을 들이댄 미국은 1950년대 후반기부터 남조선에 핵무기들을 비법적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하였다. 그 수는 1970년대 중엽에 벌써 1 000여개에 달하였다. 미제에 의해 남조선은 극동최대의 핵화약고, 핵전초기지로 전변되였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핵전쟁연습을 끊임없이 벌려오고있다. 미제는 남조선괴뢰들과 함께 《포커스 레티너》작전으로부터 시작하여 《프리덤 볼트》, 《림 스피리트》, 《련합전시증원연습》, 《키 리졸브》, 《독수리》와 《을지 프리덤 가디언》 등 수십년동안 핵시험전쟁을 계속 감행하여왔다. 그것들은 우리에 대한 로골적인 핵위협의 최절정이였다.

우리 나라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은 날로 강화되고있다. 올해에도 미국은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 또다시 우리 나라를 공공연히 핵공격대상으로 지정하였다. 우리 나라는 핵전쟁광신자인 미제의 최대의 핵위협을 받고있다. 미국이야말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침해하는 핵위협의 장본인이라는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부정할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다.

핵무기로 임의의 시각에 우리 공화국을 선제타격하고 압살하려는것은 미국의 변함없는 속심이다.

미국이 대조선핵위협을 가증시키면서 핵선제공격을 기도하는데 대응하여 우리가 자위적인 핵억제력을 보유한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우리의 핵억제력보유는 당당한 자주권행사로서 그 누구의 시비거리로도 될수 없다.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하여 할수 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우리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조선반도비핵지대창설안도 내놓았다. 그러나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모든 노력은 미국의 악랄한 핵위협공갈책동에 의해 실현되지 못하였다.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미국의 핵위협공갈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안전을 수호할수 있는 해결책을 요구하였다. 그것은 오직 《핵에는 핵으로》대항하는것뿐이였다. 우리의 핵억제력보유조치는 바로 여기로부터 흘러나온것이다.

우리가 핵억제력을 갖춤으로써 나라의 최고리익과 안전수호가 담보되고 조선반도에서 핵전쟁발발위험이 줄어들게 되였다. 오늘의 현실은 우리가 핵억제력을 보유한것이 얼마나 정당한것인가를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미국의 핵위협이 계속되는 한 우리의 핵억제력은 더욱 강화될것이다.

미국이 진정으로 조선반도핵문제해결을 바란다면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중지하고 남조선에서 모든 핵무력을 걷어내가며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리학남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구강병치료

꾸바에서 주민들의 구강병치료에 힘을 넣고있다.

나라에서는 2015년까지 구강병환자수를 40% 줄일것을 계획하고 전국각지에 1 300여개의 전문치료봉사시설들을 설치하였다.

특히 구강암을 조기에 진단하기 위한 정연한 검진체계를 수립하고 환자치료사업을 적극 진행하고있다 한다.

산림보호노력

가나정부가 최근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고 그 실행을 위해 노력하고있다.

계획에 따라 산림조성 및 보호사업에 주민들이 적극 동원되는 한편 비법적으로 나무를 채벌하지 못하도록 통제사업이 강화되고있다.

나라에서는 해마다 6만 4 460ha의 산림이 파괴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하였다 한다.

전력문제해결노력

잠비아에서 긴장한 전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정부의 조치에 따라 최근 전국적으로 낡은 발전설비들을 교체하고 전력생산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있다.

또한 전력공급망복구공사도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정부에서 여기에 많은 자금을 돌리고있다 한다.

신형독감예방사업

브라질에서 A(H1N1)형 돌림감기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17일 이 나라 보건상은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전국인구의 약 3분의 1이 왁찐을 접종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나라에서는 5살미만 어린이들과 로인들, 임신부들에게 접종을 하는데 큰 관심을 돌리고있다 한다.

인플레률 감소

메히꼬에서 올해 5월에 인플레률이 그 전달에 비해 0.25% 감소되여 4.94%에 이르렀다. 1일 이 나라 중앙은행이 이에 대해 밝혔다.

본사기자

호금도 총서기 기층당조직건설을 강화할데 대해 언급

호금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21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집체학습을 사회하면서 한 연설에서 기층당조직건설을 강화할데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당의 웅대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급 당조직과 당원들에게 튼튼히 의거하여 전체 인민을 굳게 묶어세워야 한다고 하면서 여기에서 기층당조직과 당일군들의 역할이 남김없이 발휘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기층당조직들은 당의 모든 사업과 전투력의 기초이고 당의 로선과 방침, 정책을 관철하는 전투적보루라고 하면서 국제정세가 복잡하고 나서는 과업이 어렵고 방대할수록 기층당조직건설을 더욱 힘있게 틀어쥐며 당조직들이 발전을 추동하고 대중에게 복무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유엔의 제재결의 배격

이란국가최고안전리사회가 18일 성명을 발표하여 자기 나라에 대한 유엔의 제재결의를 단호히 배격하였다.

성명은 이번 결의는 비법적이고 유엔헌장에도 위반되는것으로서 유엔이 국제적인 평화와 안전 그리고 모든 나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구가 아니라는것을 증명해주고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란인민의 합법적권리를 박탈하려는 그 어떤 행위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평화적핵권리를 옹호

레바논외무 및 이민상이 6일 한 외교석상에서 이란의 평화적핵권리를 옹호하였다.

그는 이란을 포함한 모든 나라들이 평화적핵에네르기를 리용할 권리를 가지고있다고 하면서 이란은 국제적규정들에 준하여 평화적인 핵활동을 진행하고있다고 말하였다.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나라는 핵무기를 가지고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그는 이란을 지지하는 정부의 립장을 재천명하였다.

미군기지철폐 요구

일본 오끼나와현의회가 21일 주일미군기지철폐를 요구하여 미국집권자에게 항의편지를 보내였다.

현의회는 편지에서 절대다수 주민들이 현내에 미군기지가 존재하는것을 반대한다고 하면서 후덴마기지를 즉시 철폐할것을 미국집권자에게 강력히 요구하였다.

녹아나는 나토군

아프가니스탄주둔 나토군이 항쟁세력의 공격작전에 의해 계속 녹아나고있다.

21일과 22일 남부지역에서 아프가니스탄항쟁세력의 폭탄공격으로 4명의 나토군병사가 또 즉사하였다 한다.

한편 21일 《반테로전》에 돌아치던 나토군소속 직승기가 추락하여 거기에 타고있던 나토군 4명이 죽었다 한다.

【조선중앙통신】

이스라엘의 탄압책동 규탄

에짚트외무성이 22일 성명을 발표하여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탄압책동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최근 이스라엘당국이 꾸드스의 동부지역에 있는 팔레스티나인들의 살림집들을 철거시키기로 결정한것과 관련하여 성명은 그것을 국제법위반행위로 락인하였다. 성명은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탄압책동을 중지하도록 이스라엘에 압력을 가할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하였다.

본사기자

경제침체

미상무성이 16일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올해 5월에 살림집건설착공량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17일 유럽동맹통계국은 올해 4월에 건설부문에서 생산량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3% 떨어졌다고 발표하였다.

본사기자

파업

그리스의 전국각지에서 23일 정부의 그릇된 조치를 반대하는 파업이 일어났다.

철도와 항만로동자들, 국가 TV 및 라지오방송회사들의 종업원들을 비롯한 수많은 파업참가자들은 정부의 긴축정책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처지가 날로 악화되고있는데 대하여 항의하면서 그것을 당장 취소할것을 당국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뛰르끼예에서 반이스라엘시위

오늘의 세계

규탄배격받는 인권시비군

미국의 인권실태가 한심하다는것은 잘 알려져있다. 사기와 협잡, 온갖 범죄가 성행하는 미국에서 절대다수 근로대중은 초보적인 생존권은 물론 생명안전도 담보받지 못하고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자들에 의해 인신매매의 희생물이 되여 이중삼중의 착취와 억압, 불행과 고통에 시달리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오하이오주에서는 매해 1 000명이 넘는 미성년들이 성매매를 강요당하고있다고 한다. 지난 2월 주정부가 발표한 지역내의 인신매매상황에 관한 보고서에서 이와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국제로동기구는 보고서를 발표하여 세계적으로 해마다 1 230만명이 인신매매를 강요당하고있는데 어린이와 녀성인신매매피해자수에서 미국이 앞자리를 차지하고있다고 밝혔다. 인신매매업자들의 꾀임에 넘어가 미국에 팔려간 수많은 어린이들과 녀성들이 도박장, 손톱관리점, 호텔 등에서 인신매매, 구걸 등을 강요당하고있다고 한다. 미국의 오하이오주는 물론 플로리다주, 오레곤주, 네바다주 등에서도 형편은 매한가지이다. 오죽했으면 미집권자도 자국의 현실을 개탄하였겠는가.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인신매매피해자들모두가 가난한 근로대중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사회적으로 이들에 대한 대책이 취해지지 않는다면 더 많은 희생자들이 나올것이라고 경고하고있다.

당장 먹고 살아갈 길이 막막한 가난한 집 어린이들과 녀성들이 행여나 먹을것과 일자리를 구해보려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뚜쟁이들에게 걸려들어 미국과 다른 자본주의나라들에 팔려가 갖은 모욕과 천대를 받으면서 시들어가고 비방하면서 이 나라들에 제재를 가할것이라고 위협하였다. 마치도 《국제인권재판판》이나 되는듯이 그 무슨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하는 놀음을 벌리고있는 미국의 《수고》를 두고 사람들은 랭소를 보내고있다.

광범한 국제사회계는 제 집안의 허물은 당반우에 얹어놓고 남을 시비중상하는 미국의 고약한 처사에 강하게 반발해나서고있다.

꾸바외무성은 어린이들과 청년들 그리고 녀성들을 보호하는데서 자국이 성과를 거둔데 대해 지적하고 미국이 꾸바에 대한 야만적인 봉쇄정책을 정당화하려는 속심을 품고 반꾸바비방중상깜빠니야를 벌리려 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도미니까외무상은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국에서 경제적난국을 야기시키고있다고 하면서 미국이 세계를 지옥에로 내몰고있다고 비난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남의 집일을 놓고 힐러리가 울먹울먹할것이 아니라 제 집일이나 잘 돌보라고 조소하였다. 그는 미국대통령 오바마의 조치들때문에 미국사람들이 고통을 겪고있는데 대해 유감을 금할수 없다고 말하였다.

남을 시비질하기 좋아하는 미국의 고약한 악습은 요소요소에서 나타나고있다. 최근 미국무성이 《인신매매보고서》라는것을 발표한것을 놓고서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미국은 《인신매매보고서》에서 꾸바, 도미니까, 웰남, 민주꽁고 등 나라 정부들이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있다고 비방하면서 이 나라들에 제재를 가할것이라고 위협하였다. 마치도 《국제인권재판판》이나 되는듯이 그 무슨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하는 놀음을 벌리고있는 미국의 《수고》를 두고 사람들은 랭소를 보내고있다.

광범한 국제사회계는 제 집안의 허물은 당반우에 얹어놓고 남을 시비중상하는 미국의 고약한 처사에 강하게 반발해나서고있다.

꾸바외무성은 어린이들과 청년들 그리고 녀성들을 보호하는데서 자국이 성과를 거둔데 대해 지적하고 미국이 꾸바에 대한 야만적인 봉쇄정책을 정당화하려는 속심을 품고 반꾸바비방중상깜빠니야를 벌리려 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도미니까외무상은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있는 자국을 문제시한 미국의 처사에 어이없어하면서 그 어떤 나라도 다른 나라를 재판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미국이 도덕적가치를 상실한 《인신매매보고서》를 가지고 다른 나라 문제를 론하기에 앞서 제코나 씻으라고 충고하였다.

녀성 및 어린이매매범죄방지 및 반대에 관한 행동계획을 작성하고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인신매매근절을 위한 전사회적인 운동과 국제기구들과의 협력과 정보, 경험교환 등을 진행해온 웰남은 미국이 이번에 인신매매문제를 가지고 자국을 비방한데 대해 분노를 표시하였다. 웰남은 비객관적이고 부정확한 미국무성의 《인신매매보고서》를 정치적색채가 짙은 모략의 산물로 배격하였다.

에짚트, 민주꽁고 등 나라들도 미국이 확증되지 않은 자료들을 가지고 다른 나라들의 인권형편을 거들고있는데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였다.

남을 훈시하기 전에 자기를 돌이켜보는것은 현명한 처신으로 된다. 그렇게 놓고보면 미국은 확실히 제 처지도 모르고 남의 일에 간참하는 주제넘은짓을 곧잘하는 내정간섭군, 시비군의 왕초임이 분명하다. 미국이 저들의 그러한 처사가 다른 나라들에 대한 전횡으로 된다는것을 깨달을 때가 과연 오겠는지. 그런식으로 계속 주제넘게 놀다가는 미국이 국제사회의 모두매를 맞고 지구밖으로 영영 쫓겨날수 있다.

본사기자

부당한 대이란《메쎄지》에 대한 강경대응

얼마전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요구를 받아들여 새로운 대이란제재결의를 채택하였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네번째로 채택된 대이란제재결의를 놓고 미국이 득의양양하여 당장 무슨 일을 칠것처럼 놀아대고있다.

미집권자는 희색이 만면해가지고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채택한 대이란제재결의가 이란에 대한 《명백한 메쎄지》로 된다고 하면서 이란지도자들이 현재의 과정(《핵계획》)을 계속 추구한다면 더욱 고립될것이라고 희떠운 소리를 하였다. 미국무장관 힐러리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이란에 대한 추가제재결의가 채택된것을 미행정부의 대외정책의 《승리》로 묘사하면서 흡족해하였다. 유엔주재 미국대표까지 나서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이번 조치가 이란국민을 대상으로 한것이 아니라 정부의 《핵야망을 목표로 한것》이라고 횡설수설하였다.

그들의 언행을 보면 미국이 유엔무대를 통한 대이란추가제재를 끄집어내기 위해 품을 많이 들였으며 그것을 이란에 대한 압박과 고립의 도수를 높이는데 써먹으려 하고있다는것이 뚜렷이 알린다.

알려진것처럼 미국은 이란의 평화적핵활동을 《핵무기개발》로 몰아붙이기 위해 무진애를 써왔다. 하지만 그것이 통하지 않자 미국은 유엔무대를 리용하여 이란에 대한 제재를 계단식으로 확대강화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이번에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대이란제재결의가 또다시 채택되게 된것은 미국의 남다른 《수고》의 결과물이다. 대이란제재확대강화를 통해 미국이 노리는 목적은 그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란을 제거함으로써 중동지배전략실현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자는것이다.

미국은 말끝마다 이란의 《핵야망》에 대해 떠들어대고있는데 사실상 그것은 이란의 평화적핵계획을 문제시하여 이란을 고립압살하기 위한 미국의 교활한 술책의 산물이다. 이란이 자주적립장을 버리고 미국에 고분고분했더라면 애당초 이란의 평화적핵계획은 문제시되지도 않았을수 있다.

중동평화의 암적존재로 몰리우고있는 이스라엘은 상전인 미국의 비호, 협력밑에 많은 핵무기를 갖추고 거들먹거리지만 이란은 미국의 비위에 거슬린다는 단 한가지 리유로 정부전복위협을 받고있다. 이번에 미국이 가자지대를 향해 공해상에서 항행하던 국제인도주의원조선단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법무도한 공격행위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은것을 두고 국제사회가 놀라움을 표시하고있는것은 우연하지 않다. 미국의 론리는 저들이 《악의축》으로 규정한 이란의 평화적핵활동이 《핵무기개발》을 위한것이라는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강도적론리가 오늘의 밝은 세상에서 통할리 만무하다.

브라질대통령은 새로운 대이란제재를 리행하기로 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결정은 유엔의 영상을 훼손시키는 《하나의 실책》으로 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이란에 협상탁에 나올것을 호소할 대신 완강한 태도만 취하면서 제재를 유지하기로 한것은 《아이가 매맞을짓을 하지 않는데도 아버지가 아이에게 매를 안기는것이나 다름없는 처사》로 된다고 조소하였다.

한편 뛰르끼예의 한 관리는 자기 나라가 처음부터 이란핵문제를 외교적방법으로 해결할것을 주장해왔다고 말하였다. 에짚트외무상은 제재는 결코 이란핵문제해결의 방도로 될수 없다고 하면서 이란이 국제협약들의 틀거리내에서 핵동력을 발전시킬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슬람교국가회의기구는 성명을 발표하여 이번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조치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란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이란은 미국에 의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제재결의에 우라니움농축설비들을 늘이는 등의 강경대응조치를 취하는것으로써 자국의 평화적핵활동권리와 립장을 완강히 고수하고있다.

이란대통령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새로운 대이란제재결의를 아무런 가치도 없는것으로 락인하고 《누데기수건》처럼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그런 부당한 조치가 자기 나라의 핵계획과 관련한 협상의 종결을 의미할수 있다고 서방에 경고하였다. 이란국가복리리사회 위원장은 제재는 이란을 굴복시키기 위한 심리전일뿐이라고 하면서 그러나 자국이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다는것을 렬강들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이란이 이미전에 저농축우라니움을 교환할 용의를 표명하고 이와 관련한 회담을 계획하고있었지만 서방이 불순한 목적밑에 그것을 무시하였다고 언명하였다.

지금 이란은 유엔무기금수조치가 자국의 국방력발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할것이라고 하면서 자기 나라에는 서방의 무기가 필요없으며 자국이 결심만 하면 얼마든지 현대적인 무기들을 생산할수 있다고 하고있다.

최근 이란국회는 서방의 반이란적대시정책에 대한 강경대응조치의 일환으로 농축우라니움을 얻기 위한 작업을 계속 진행하며 자국의 선박이나 수송기가 검사를 당하는 경우 페르샤만과 호르무즈해협에서 서방나라들의 선박들을 대상으로 대응조사를 진행하며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틀거리내에서만 핵사찰을 허용할것을 요구하는 긴급법안을 채택하였다. 이것은 미국 등 서방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의 평화적핵활동권리를 옹호고수하려는 이란인민의 굳센 의지의 반영이다.

미국 등 서방의 그 어떤 반이란책동도 이란의 강경한 자주적립장과 의지를 허물지 못할것이다.

본사기자 조택범

ㄱ-011137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 (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26-2312, 편집국 326-1328, 론설원실 326-5428, 당력사교양부 326-5528, 당생활부 331-4528, 사회주의교양부 321-3528, 공업부 326-0263, 농업부 326-5628, 과학문화부 321-4628, 조국통일부 321-4882, 국제부 326-4728, 사진보도부 326-0712, 특파기자부 321-4328. 편집위원회